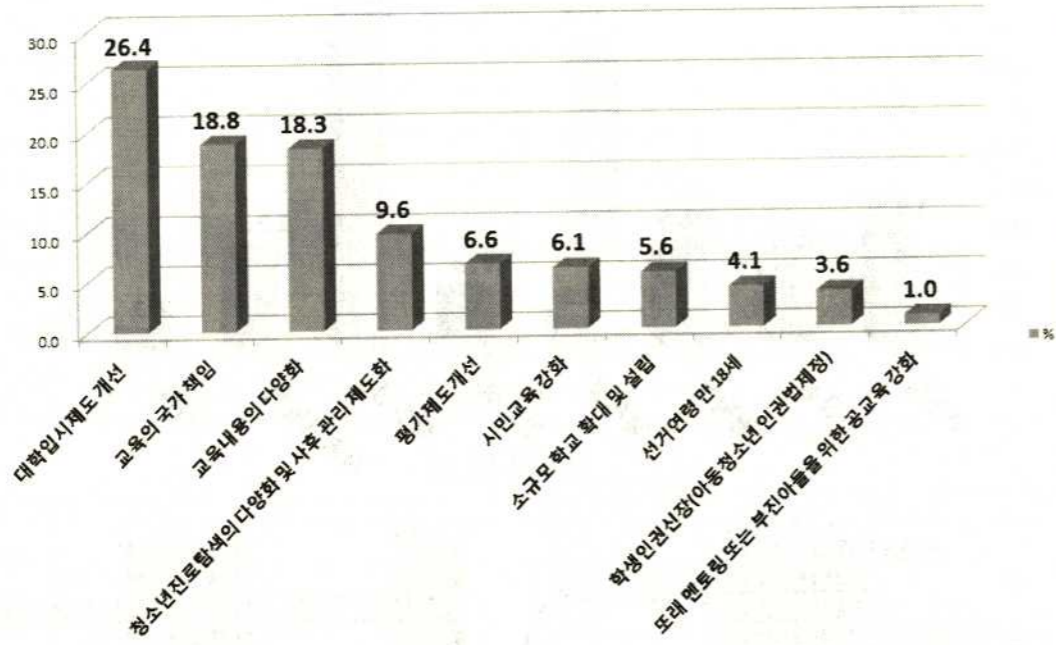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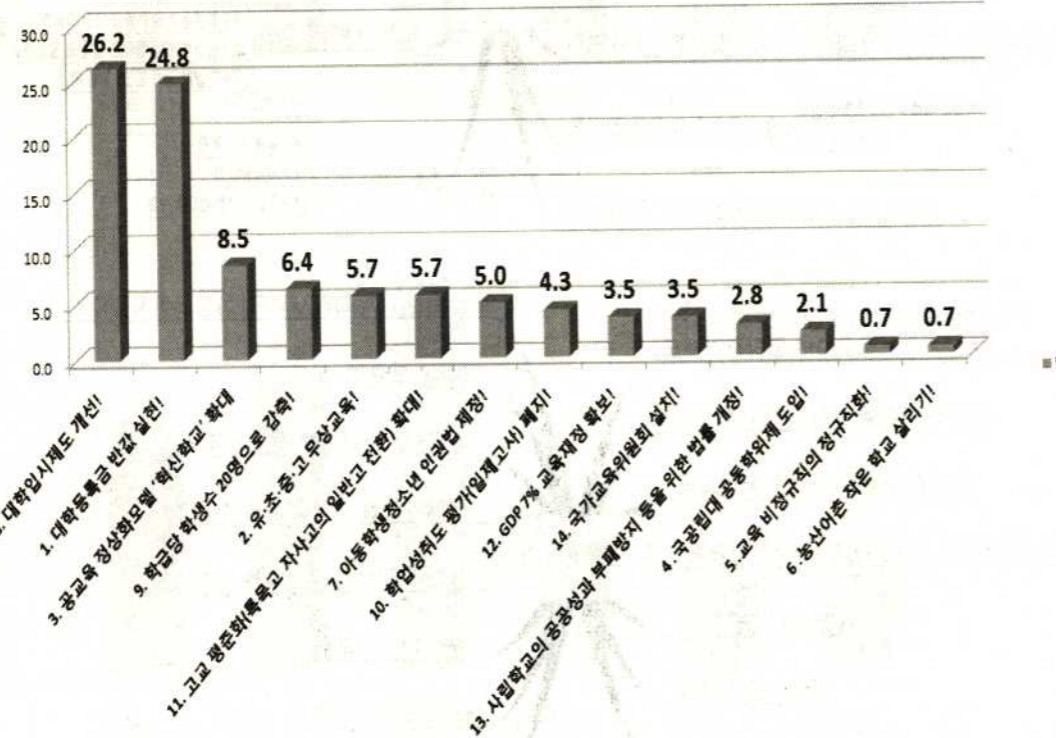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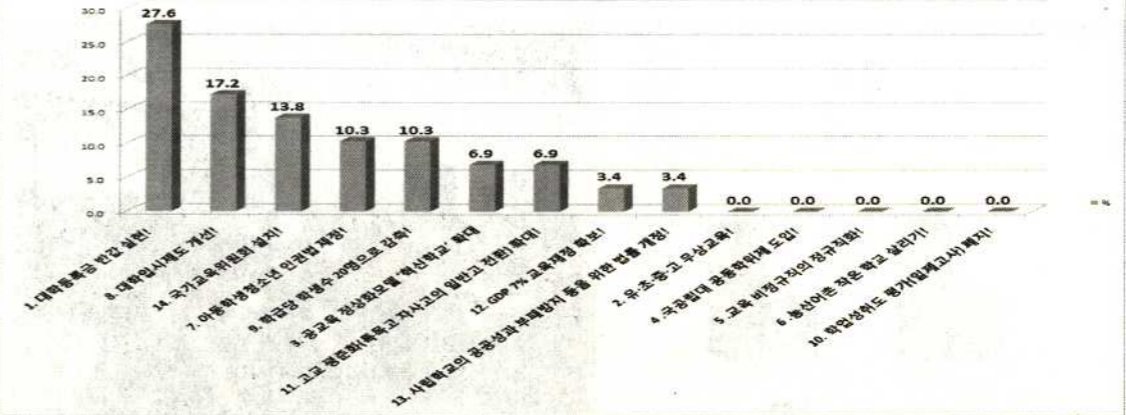
현장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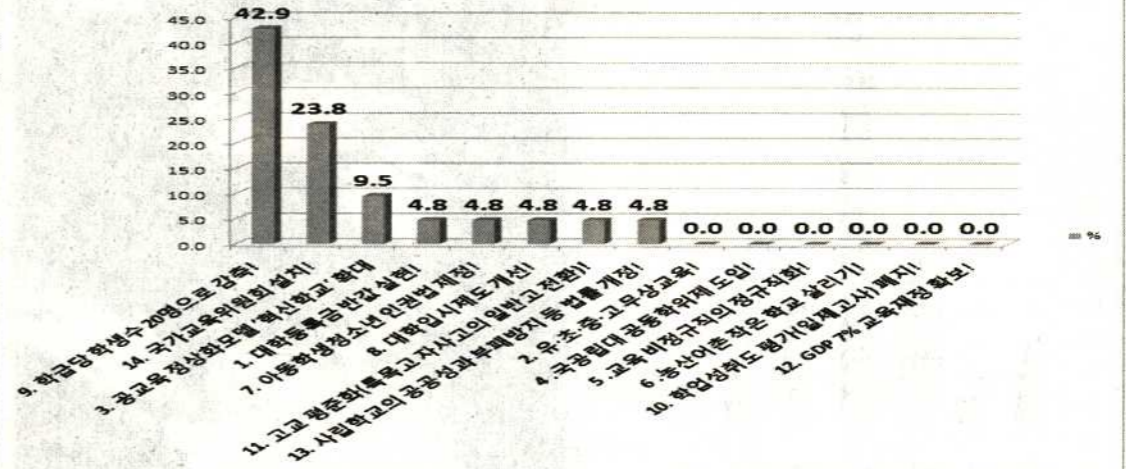
국민교육연대 제안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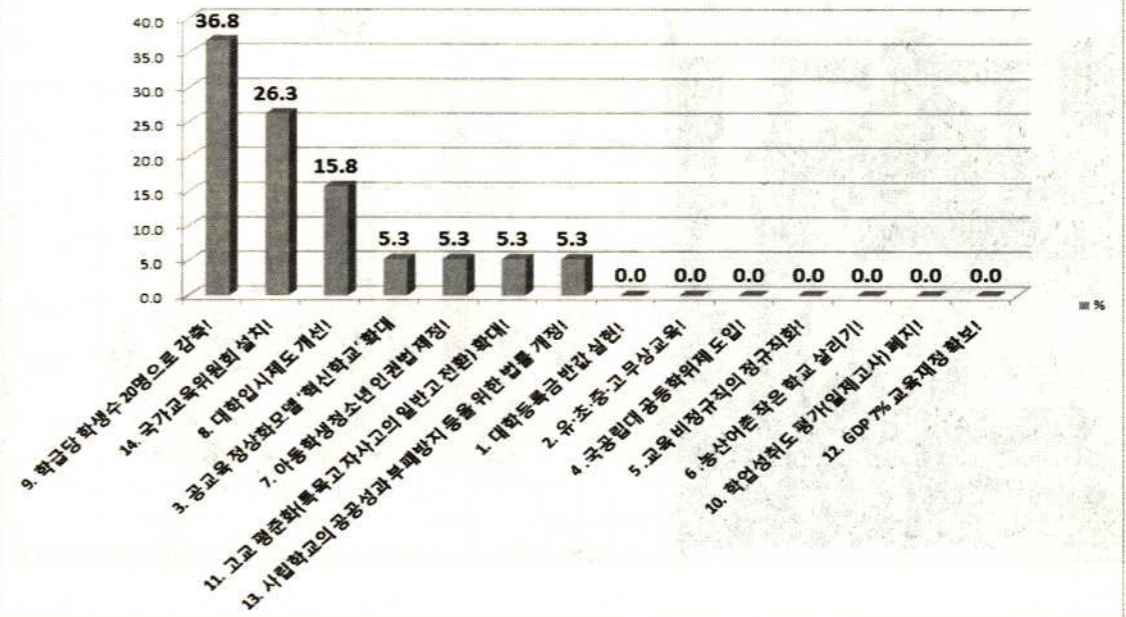
학생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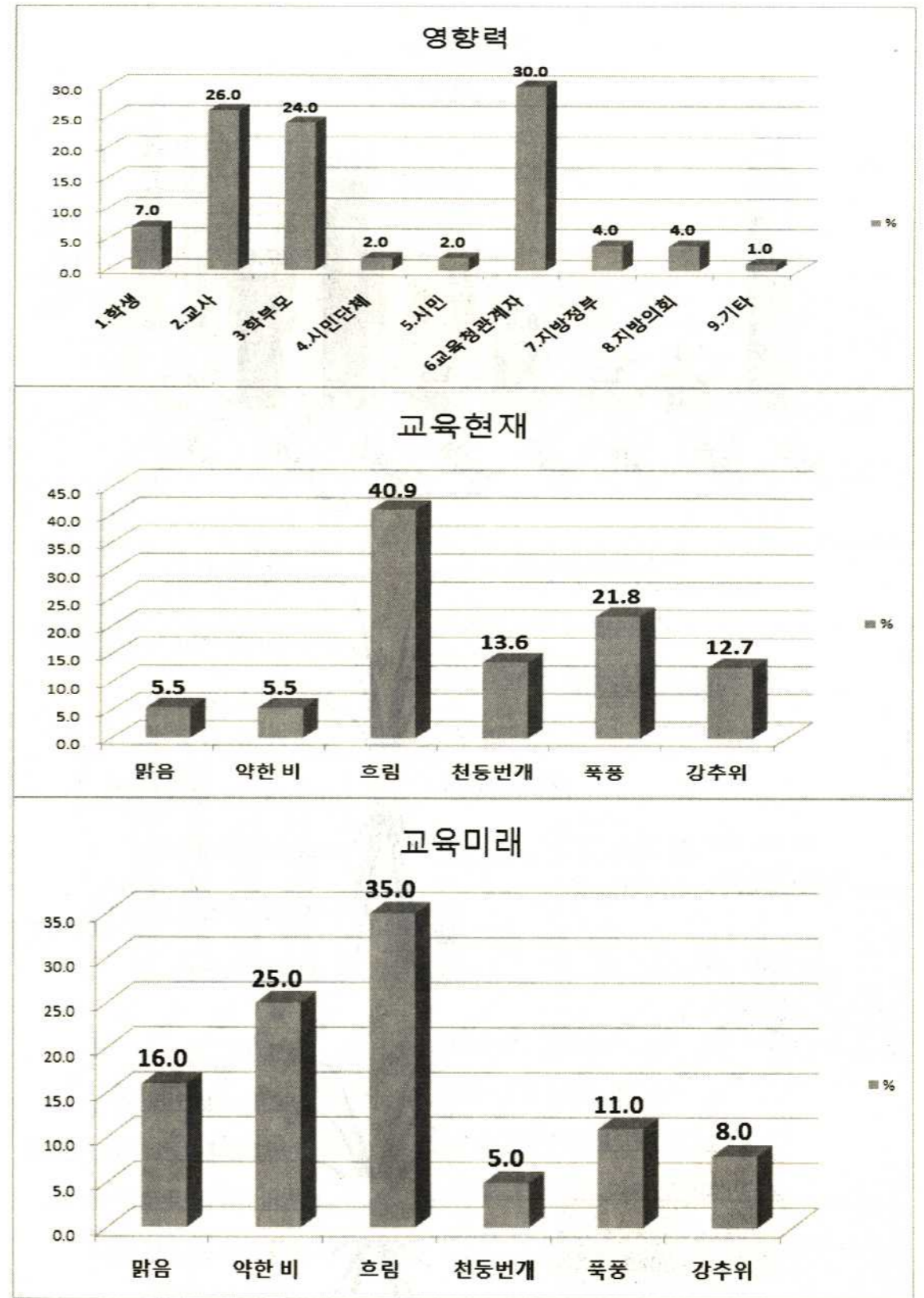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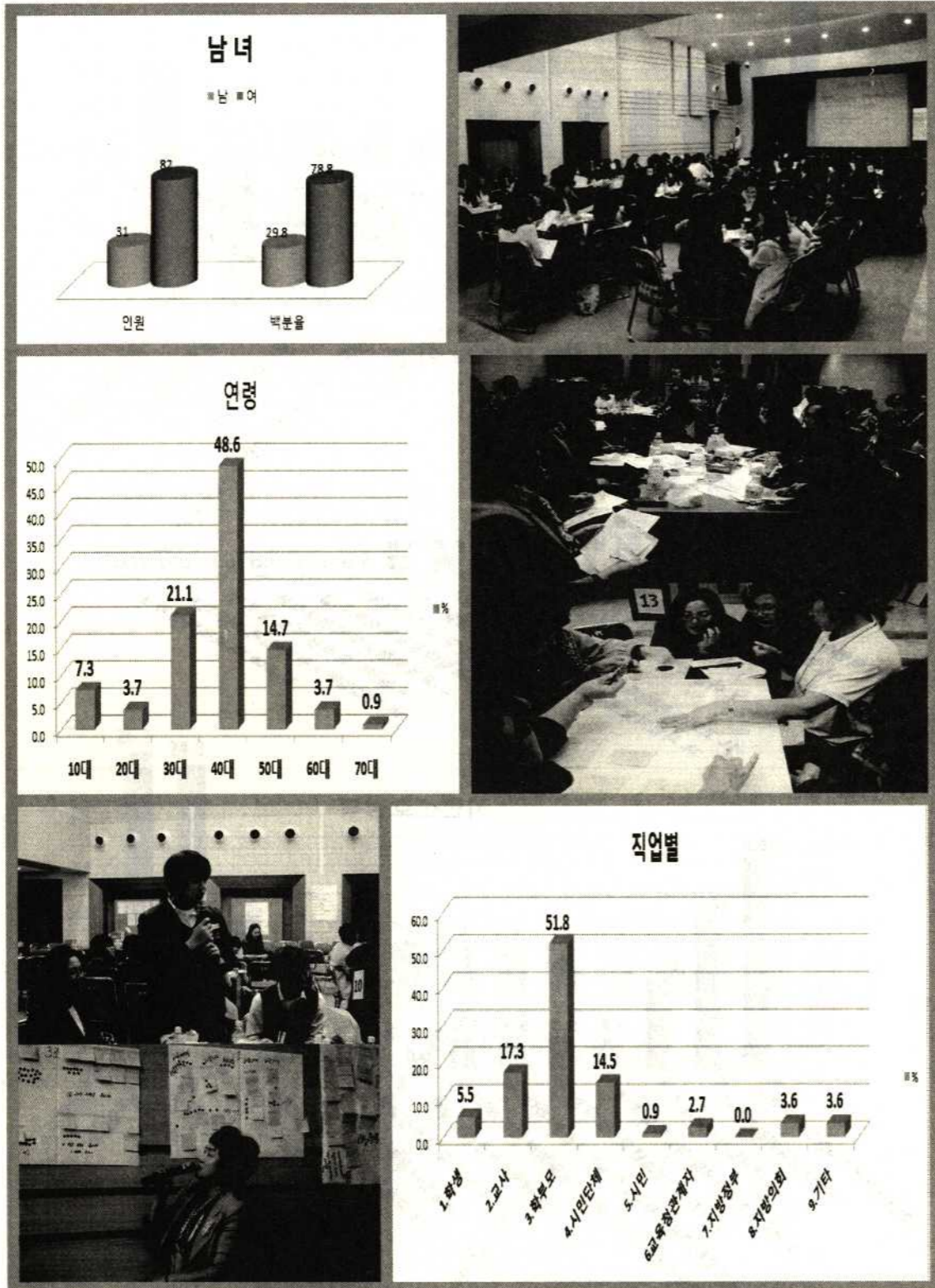
교사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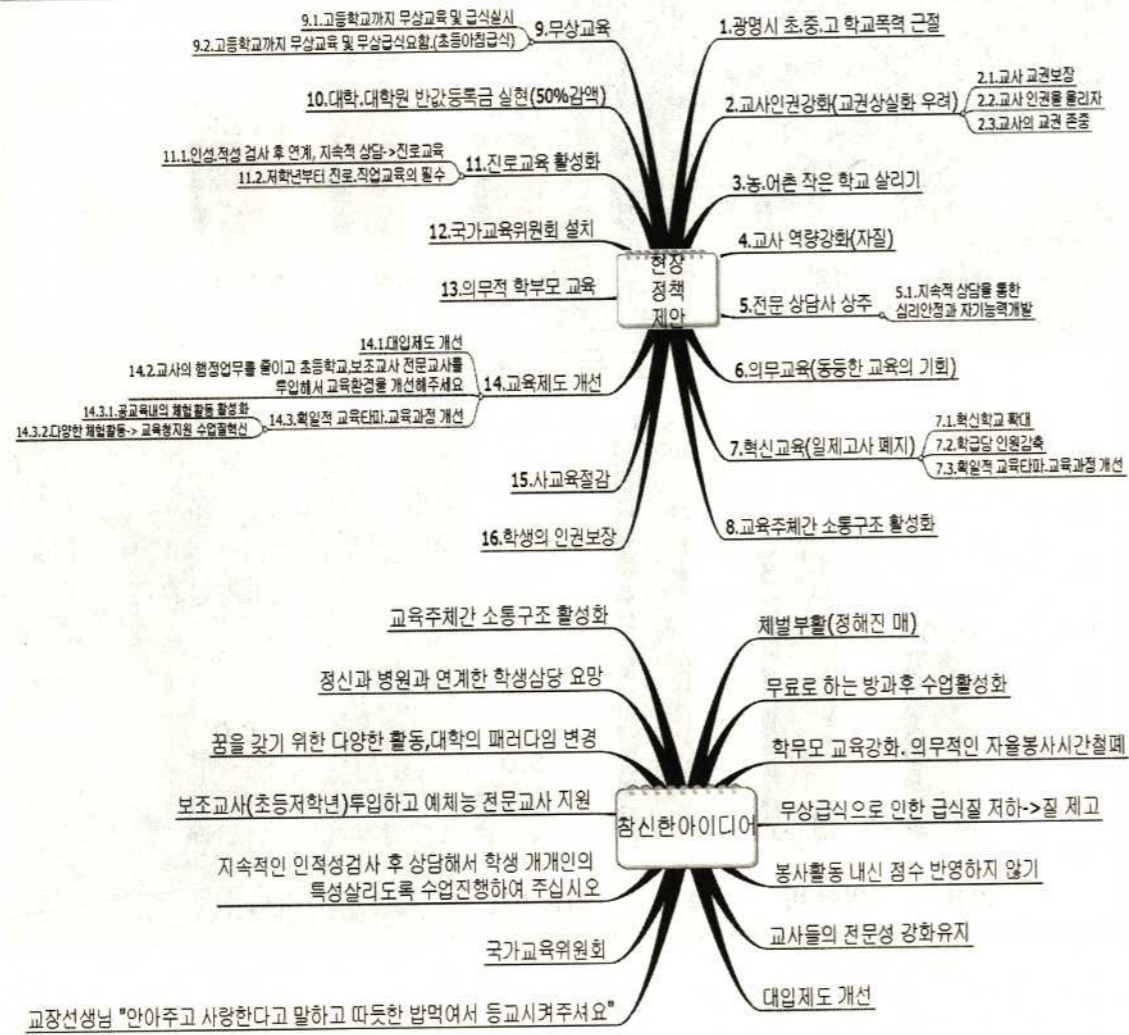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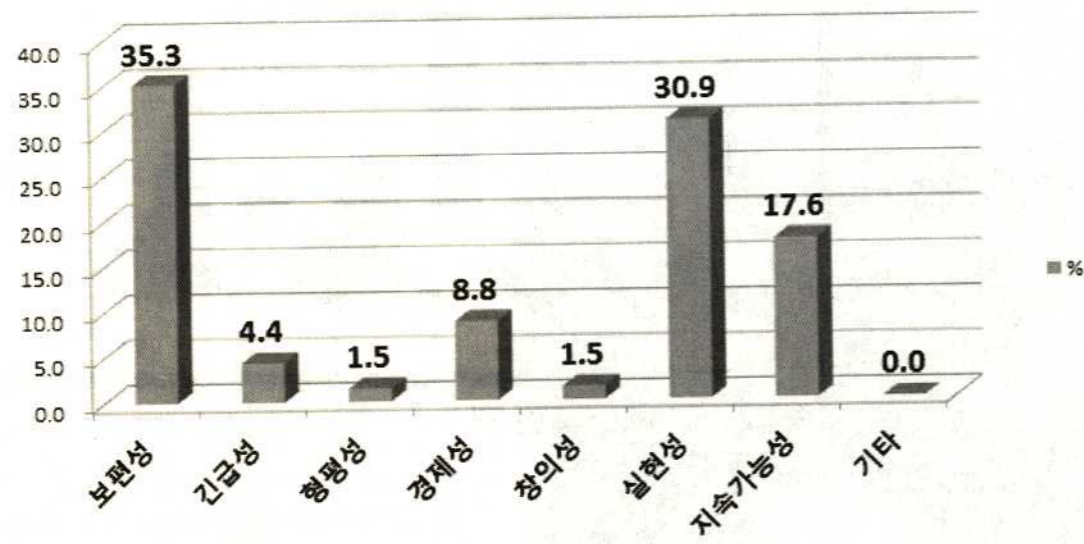
시민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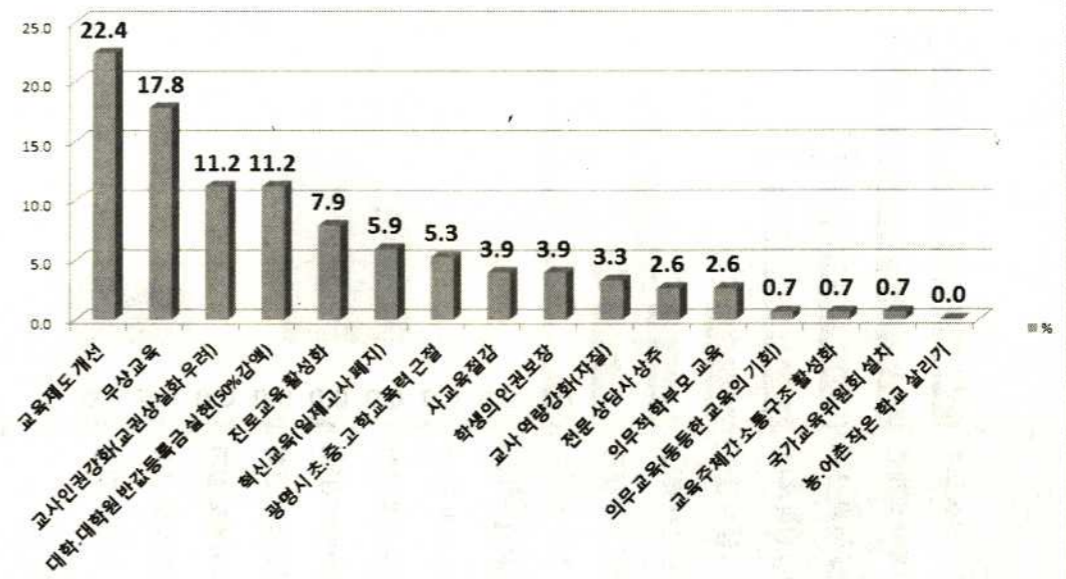
마. 광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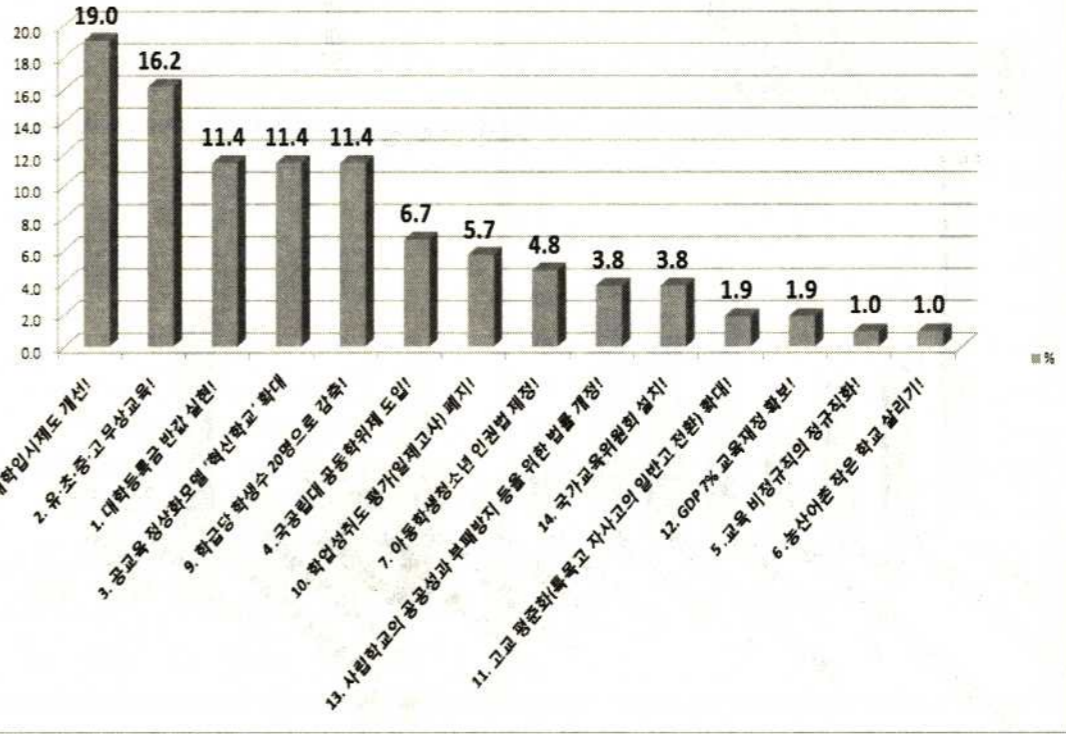
기준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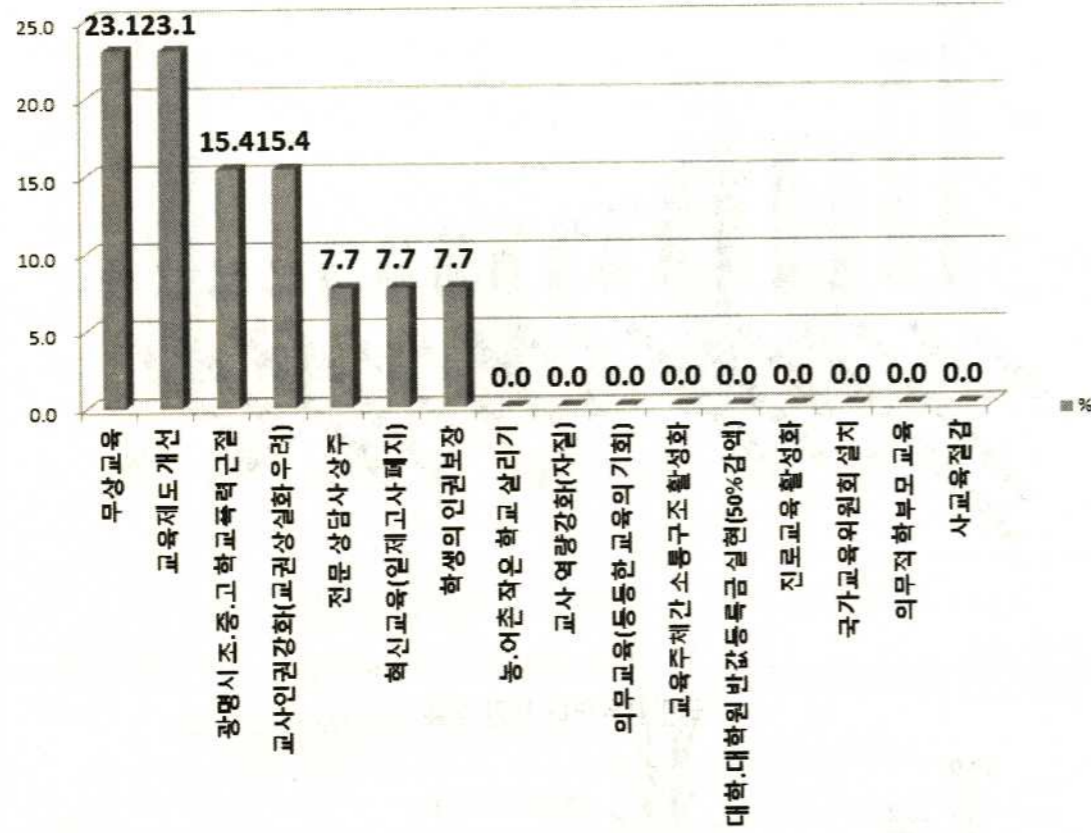
현장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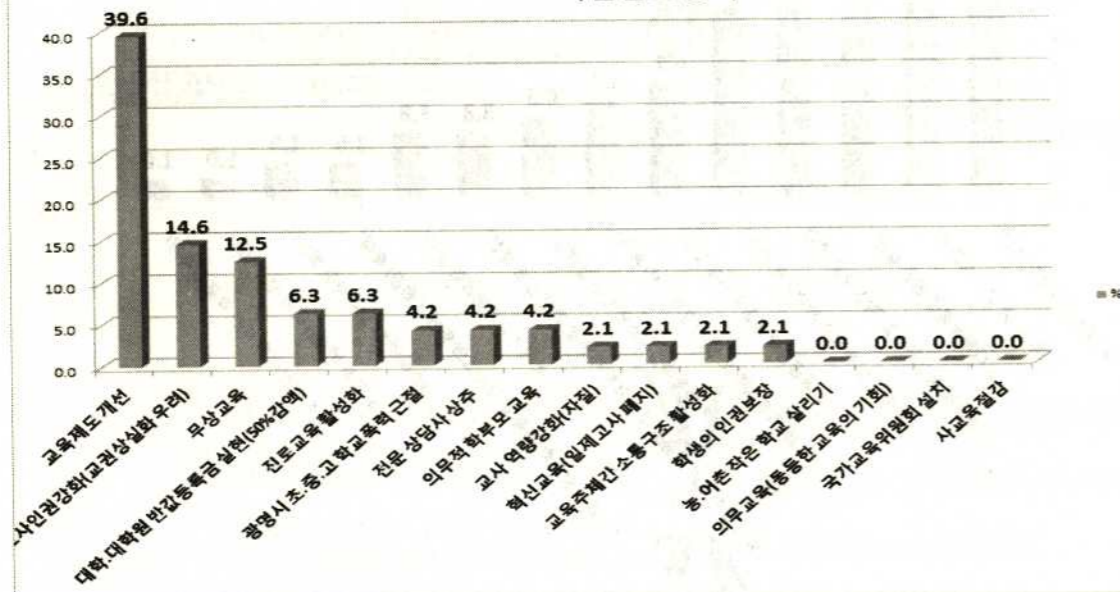
국민교육연대 제안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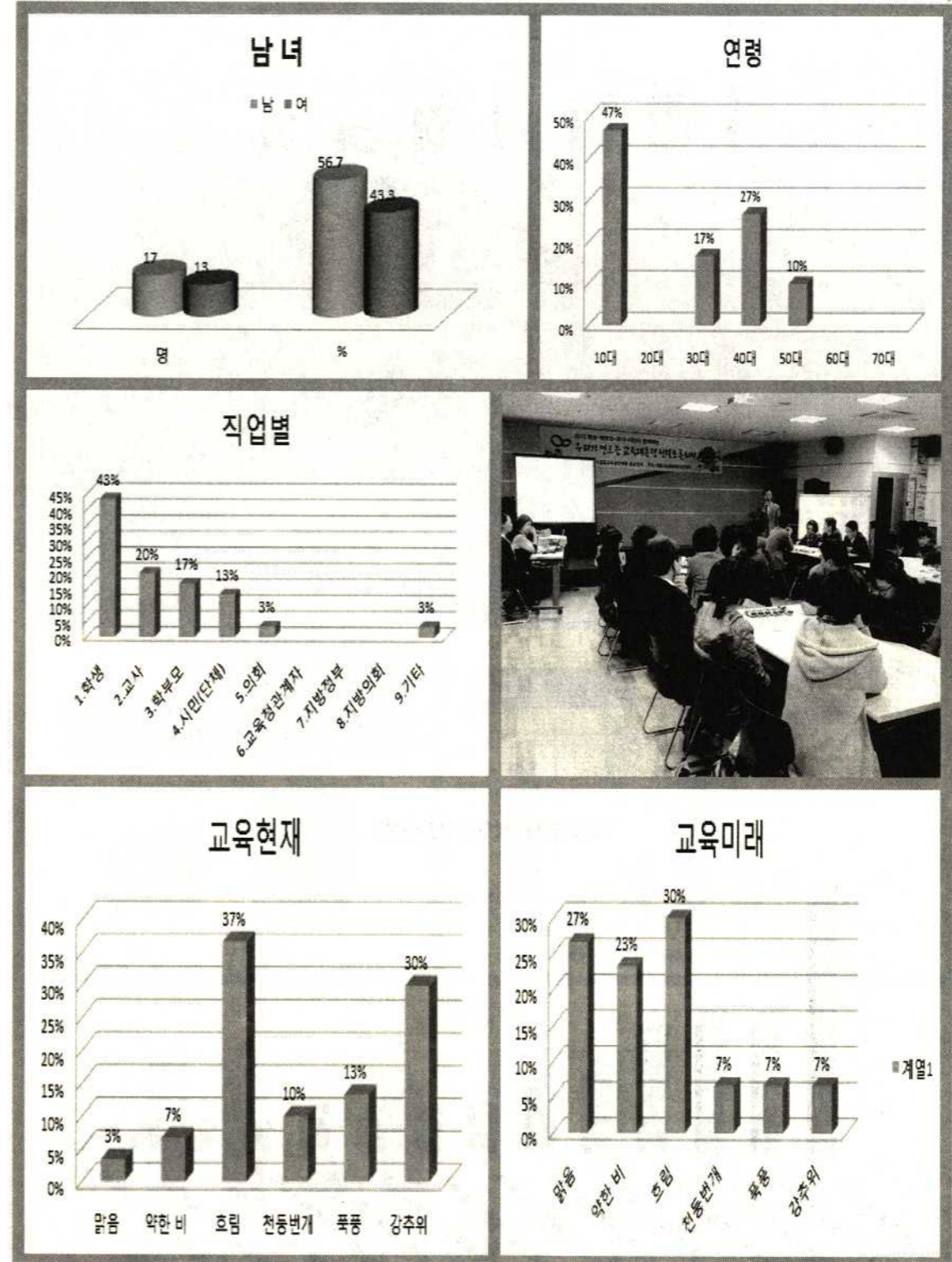
교사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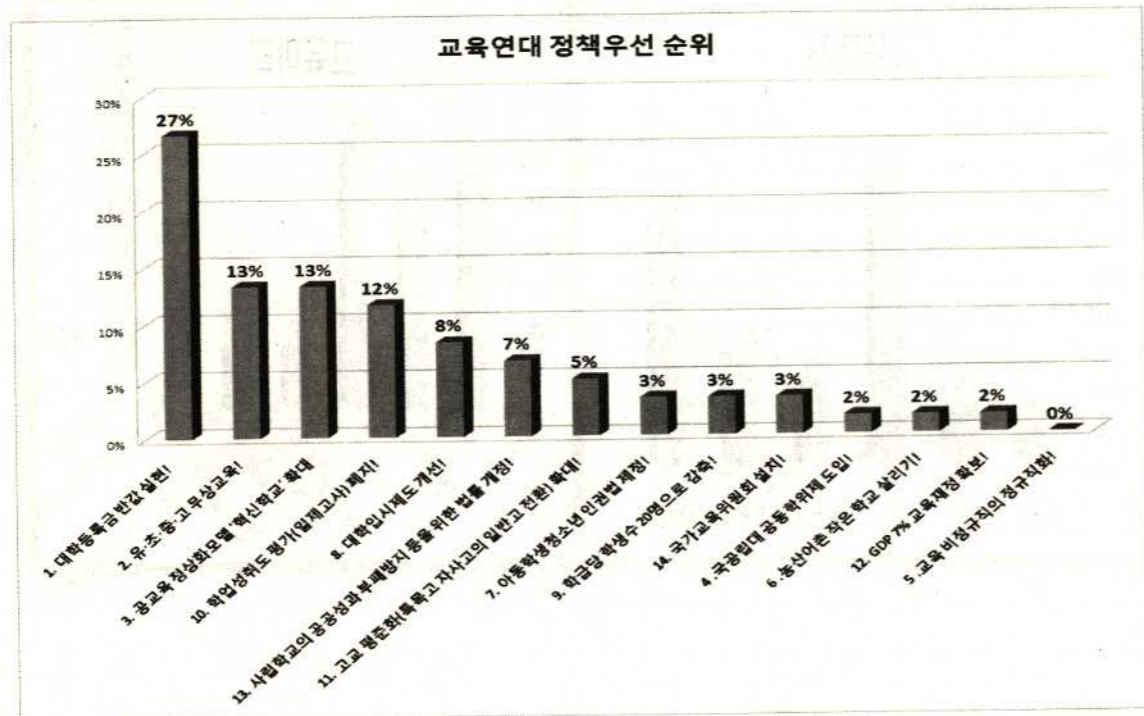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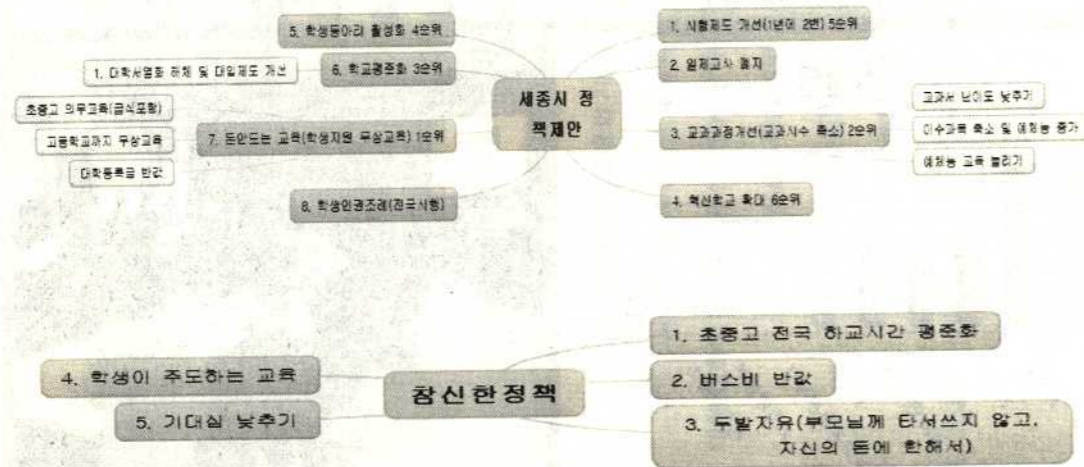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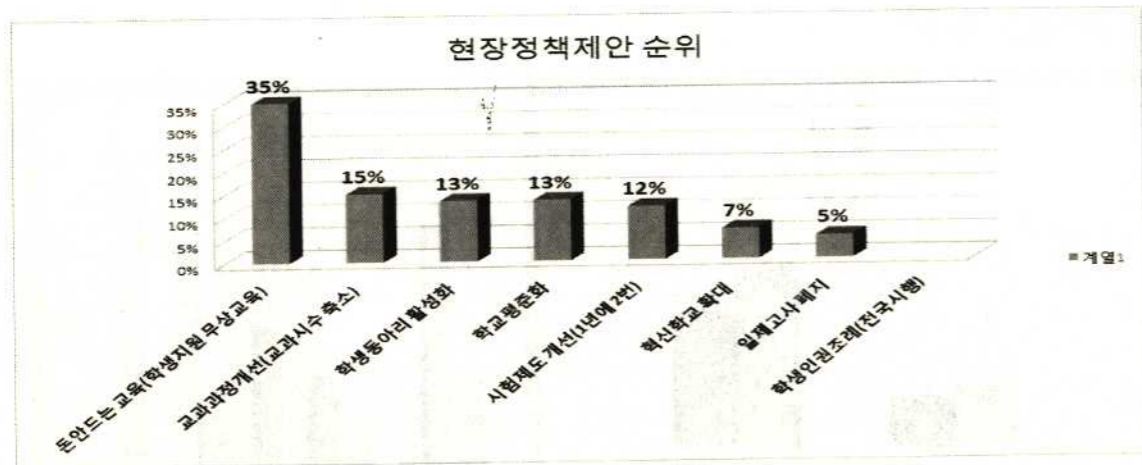


시민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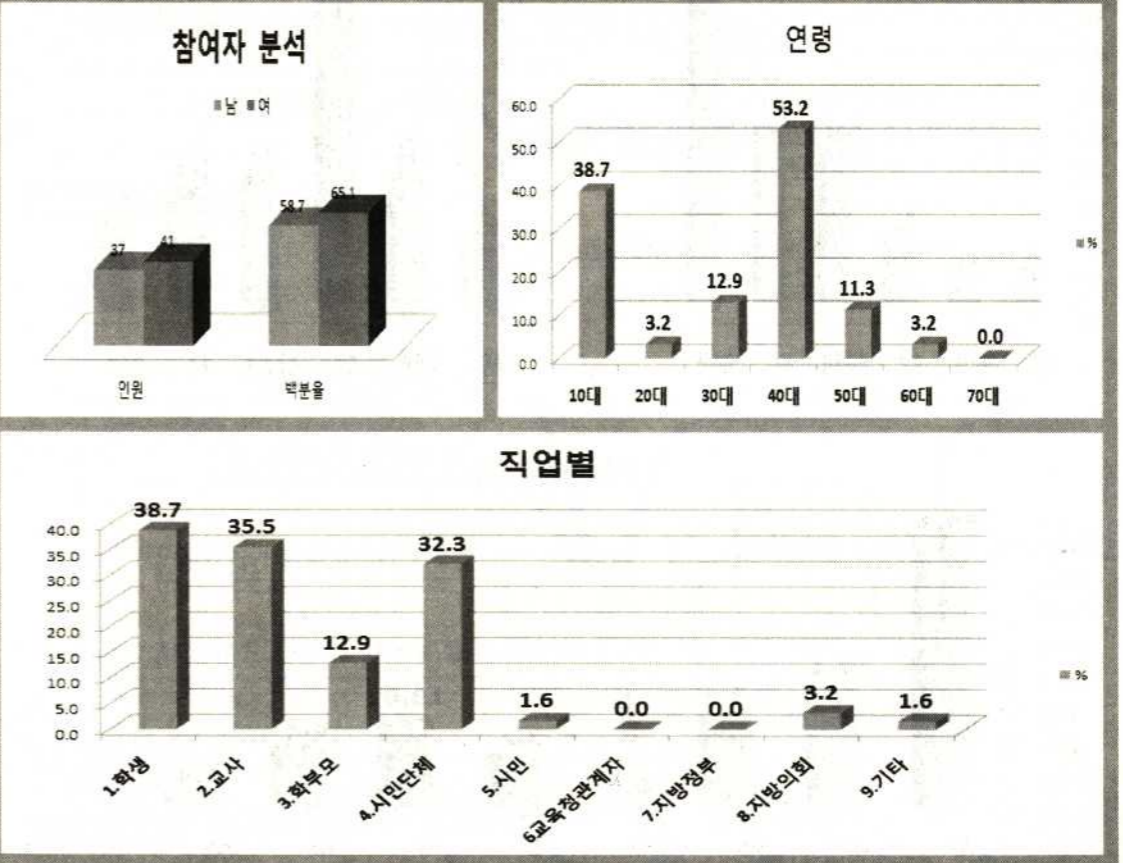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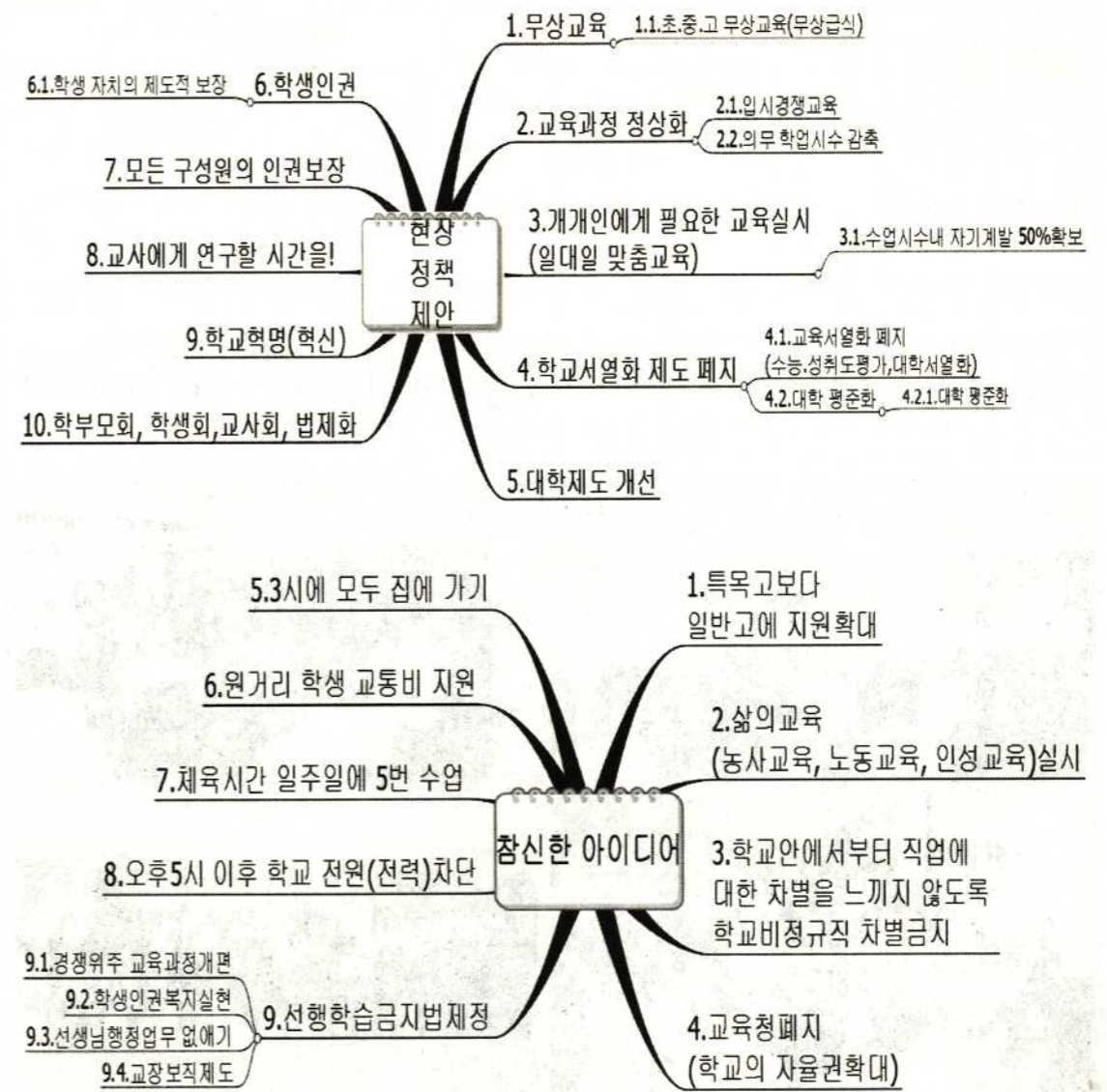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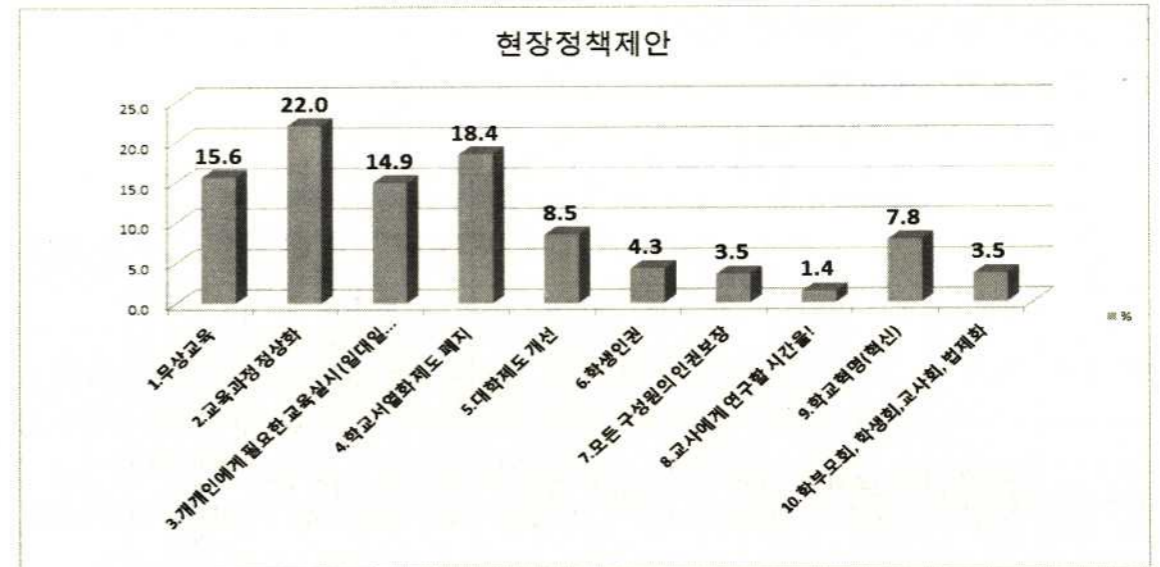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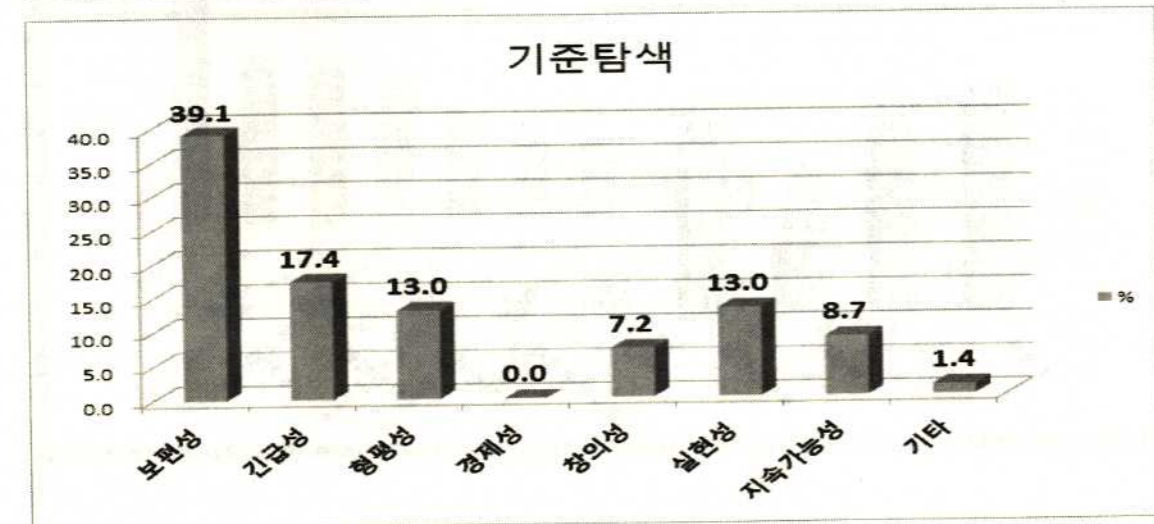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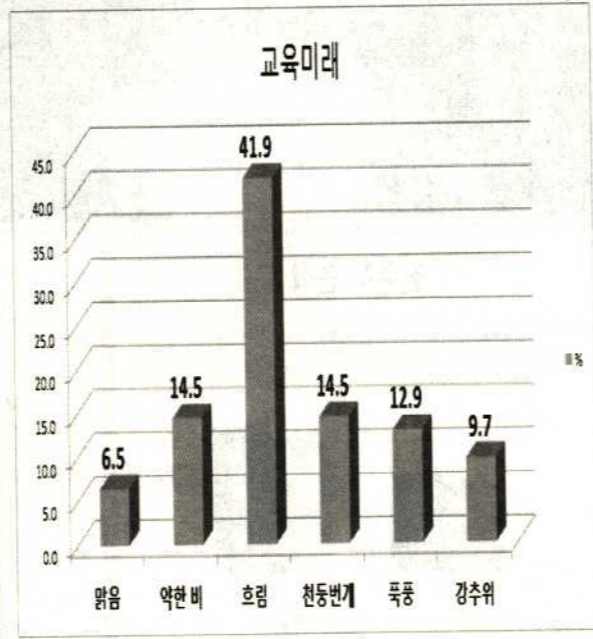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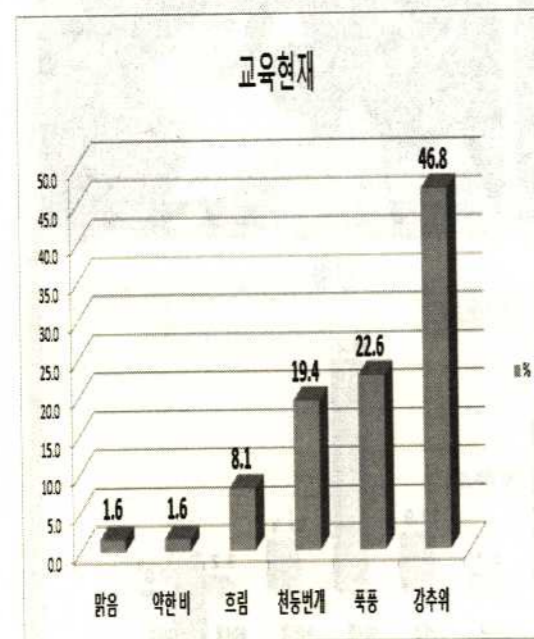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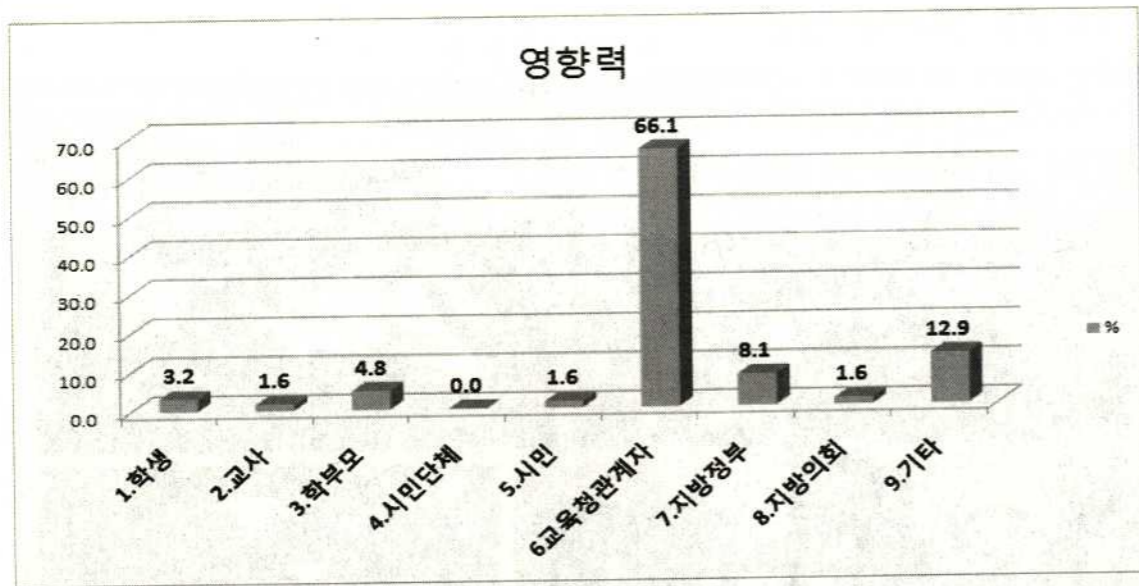
바. 세종 결과





사. 울산 원탁토론 결과





2. 오픈스페이스 지역별 결과

가. 목표 오픈스페이스

□ 브레이크아웃 세션(주제)

9 교육홍보 전환 중심원	교실이 행복해 지기 3	중요대학 ... 5 위계 정경숙	위기청소년 4 정경숙	다양성 1 정경숙	교과서 부교재, 급식 6 정경숙	선행학습 없는 교육 2	가슴 뛰는 삶? 8 강경자	교육노동 자의 비정규직 철폐 10 김명중	공립 대안학교 10
교육 홍보	교실이 행복해지 기	학교폭력 대책	위기 청소년	다양성	교과서, 부교재, 급식	선행학습 없는 교육	가슴 뛰는 삶?	교육노동 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립 대안학교
거점 교육청 개선	교육주체 누구인가?	장애인의 통합교육	교실풍경	장애인의 행복권리	인권조례 어디까지나?	도전정신 키워 향토정신 기르자	대학등록 금 반값 반드시 실현!	예절 다시시작	예술교육 의 뿌리



□ 브레이크아웃 세션(회의록)

주제 1.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수	7	투표수	26
참가자	박수경, 김성철, 송지연, 정경숙, 강경자, 김명중, 임원택		

- 박수경: 삶의 밑거름은 문화예술, 뿌리를 찾는 교육이다.
 - 김성철: 학생들이 예술로 클 수 있는 조기교육(소질, 자질) 방법에 대해 토론.
 - 박수경: 학력에 치중하는 풍토가 문제이다. 예술로 인재양성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이 컴퓨터부는 200~300명인데 무용부는 없다. 학부모 독려도 안 되고,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이 개설이 안돼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연계가 안 되는 게 문제다.
 - 김성철: 초등학교 예술 전담 교육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 박수경: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무용 교육하는 실정이다. 체육교과의 한 영역으로 무용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성철: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 교과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서 이를 운영해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 김명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이 필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영역은 있으나 언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미흡하다. 학교평가 기준, 학생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학교평가기재를 바꾸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축제, 청소년문화 축제 등 다양한 학생 문화체험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정책적으로 동아리 활동 여건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별부가금 지급 형태 등이 있겠다.
 - 정경숙: 공립학교의 담임교사는 5년 마다 전근을 간다. 이런 제도하에서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박란: 학력에 치우친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화 예술 교육은 불가능하다.
 - 강경자: 방과후학교 지침을 개정해서 문화 예술 교육이 권장되도록 해야 한다.
- 대안
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문화예술분야의 강의가 강조되어야 함
 2.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강의 질을 위해서 인센티브(특별부가금) 지급이 검토되어야 함
 3. 중등: 동아리,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4. 학교 평가 기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정해서 동아리, 학생회, 축제, 청소년 문화 축제 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5. 공립학교 교사 5년 전근시스템에서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중요.

6. 학력에 치우친 입시제도 개선이 시급함.

7.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주제 2. 교육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참여자 수	8	투표수	26
참가자	김신자, 김미, 구본웅, 최영웅, 서창호, 이귀순, 최성, 최대욱		

- 김신자: 전 국민의 가족 중 일부는 비정규직이다. 16년간 조리사가 월 83만원 전남에 30여개 직군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일에 종사하지만 지역에 따라 직종명이 다르다.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 서창호: 현재 전남에서 해결된 부분은? 무기계약직은 되었는가?
- 김신자: 근속수당 신설, 임용권 교육장 전환, 복지 포인트 신설, 명절 휴가금, 무기 계약은 일부 직군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은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최영웅: 각 직군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상 한 학교에만 근무하게 됨으로써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순환을 실시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시, 조리원→조리사→영양사 등 직종 전환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 미: 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미자격자가 일반직으로의 직종전환은 힘들다.
- 최영웅: 국가를 상대로 해결해야 한다. 기능직 조무원이 6개월만 근무하면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다
- 서창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특수직이 보다 나올 것 같다.
- 구본웅: 전남에서 해결 할 사항은 아니다. 교육공무직 전환된 후, 일반직 9급, 8급은 급여가 적다. 모두가 열악한 상황에서 조무원(기존의 일용 잡급)이 직종전환되었을 때, 사회의 원하는 수준을 생각해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 모두가 동의할 것인가? 기회의 평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 김 미: 기회의 평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응시하지 않아서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뽑지 않아서 비정규직이다.
- 김신자: 조리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회가 아예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교육청 선발이 학교 장 선발로 전환되었고 근무일수도 줄어들어→처우가 안 좋아짐.
- 최영웅: 각 직렬의 정규직 전환 시, 본인 직군에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기능직→일반직으로의 수평전환은 반대한다.
- 서창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는 그에 맞춰서 조정하면 된다.
- 이귀순: 급식실 종사자는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 공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 구본웅: 학교회계직원을 조례에 넣은 수 있으나 조례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 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서창호: 시도별로 협의를 얻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 3. 예절 교육

참여자 수	7	투표수	21
참가자	김한숙, 김효승, 김광섭, 박두열, 최대욱, 홍영택, 조옥희		

- 홍영택: 아이들 버릇이 없다. 기본예절이 없다. 교육의 기본은 예절이다.
- 김광섭: 예절 기본이 무너졌다. 교사가 애들에게 먼저 공손히 인사한다. 인사는 교사에 대한 존중감이다. 회복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다.
- 박두열: 예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절이란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하였는가?
- 김한숙: 예절이 무엇인지 모른다.
- 박두열: 서로를 배려 존중해 주는 것이다.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 요즘 학교 예절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김한숙: 현실에 맞는 예절이 필요하다. 예절 기본 ①인사 ②질서와 약속 준수 ③배려하는 마음 등을 각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교육한다.
- 최대욱: 일방적인 무조건적 강요는 예절이 아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예절은 원리와 학문이다.
- 김광섭: 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 김한숙: 예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통문화를 인식시키면서 예절을 교육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 홍영택: 아이가 예절이 바르면 부모도 그렇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 김한숙: 학교,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 모두 같이 예절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배가 된다. 복장부터 한복 복장으로 한다. 일선 교사는 예절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 가르치면 따라온다.
- 홍영택: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일주일 한번이라도 가족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은 없다. 교권은 없다. 안정이 없다. 학교 폭력 없애려면 교권이 부활되어야 한다.
- 박두열: 교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예절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가? 학교폭력의 사회문제 대두는 기존에도 있었다. 이를 새로운 문제인양 확대해서 문제화시켜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학업성적으로 귀결하는 것이 문제다.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펼쳐진다.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 홍영택: 학생들은 처벌할 수 없다. 폭력을 너무 과잉 확대한다.
- 박두열: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매로 길들여지면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 최대욱: 기존에는 학생 행동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었다. 지금은 나한테 좋냐, 싫으냐로 바뀌었다. 학교 현장은 너무 어렵다.

주제 4.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참여자 수	8	투표수	21
참가자	서창호, 선경호, 김신자, 김미, 이귀순, 성정례, 이현미, 양선희		

□ 자기소개

- 서창호: 나는 자식들이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고, 사회에 진출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교 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선경호: 대학등록금 낼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가정이 힘들다. 특히 사립은 등록금이 비싸서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모든 이에게 경제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
- 김신자: 자녀가 넷인데 셋이 사립대를 졸업했다.
- 서창호: 국립과 사립의 등록금이 2배 정도 차이하고, 특히나 자연계열, 공학, 약학계열은 더 상당히 높다. 영국은 등록금이 비싸지만 장학혜택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 반값등록금이 대신 공약이 될 수 있게 추진하자.
- 이현미: 사립대는 장학금도 적지만 기숙사도 부족해 기숙사를 증축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
- 선경호: 사교육비 때문에 워킹맘이 많고 대학 등록금이 커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사립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기숙사 증축은 어려우나 등록금이 낮아지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고 장학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 이현미: 주변에 대학 등록금, 숙소비 때문에 집을 팔고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다.
- 이귀순: 학자금 대출, 며느리 들일 때 시어머니가 신용평가를 확인한다. 대출이 있나 없나.
- 선경호: 청년 실업률이 높아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이다. 첫째, 대선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 주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이 지역의 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은 학부모가 변해야 한다. 특히 엄마가 변해야 사회가 바뀐다. 지역 업체, 기업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양선희: 나는 만학도인데, 반값도 아닌 전체장학금(무료)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 성정례: 등록금이 비싸 대학은 못 가는 것은 교육의 평등이 아니다.
- 선경호: 사립은 등록금을 낮추면 교수들 급여가 줄어든다. 그래도 우리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고 특성화하며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한다. 안경공학과만 보자면, 지역 대학과 서울 지역 대학이 결국 같은 자격증을 땀다. 그러니 굳이 멀리 수도권 대학을 고집할 필요 없이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 양선희: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나?
- 김 미: 인터넷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결 론: 만장일치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을 위해 노력하자.

주제 5. 위기 청소년

참여자 수	8	투표수	14
참가자	정정숙, 김상윤, 김광섭, 김성철, 황진경, 양정숙, 문희, 장복남		

- 정정숙: 위기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것을 지적해야 한다. 1. 학업부적응 2. 생활부적응: 공부 는 잘하지만 사회적 측면이 안 된다.
학업에 있어서 위기 청소년은 학교부적응 학생이다. 장기결석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바로 이런 학업 부적응 학생들이다.
- 정정숙: 학교 안의 문제 학생, 개인, 사회, 학교 요인들이 부적응으로 이어짐. 충동, 우울, 자아(공격성), 공격성, 다양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상황, 부모의 의사소통 부재, 친구, 왕따 등등
- 김광섭: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한부모(이혼 가정), 규칙적이지 못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손가정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 정정숙: 방임(부모 방임가정)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 김성철: 결손가정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 황진경: 지역아동들 중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각자 흩어져서 생활하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보육원에서는 조손 가정의 특성이 있다면 의복에 신경을 써준다. 결손가정이지만 성향이 달라서 사람이 필요하다.
- 정정숙: 부모님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 중독되고 학교부적응 학생이 되고, 아빠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아빠의 수감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학생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빠지게 된다. 지역 센터에서 2개월 동안 치유과정을 겪은 경우의 학생은 지금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 황진경: 청소년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 문 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처 교육이 선행되도록 법제화도 필요하다
- 장복남: 학생에 대한 방치는 폭력으로 간다.
- 김성철: 어버이학교처럼 부모님들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환경 여건상 교육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
- 문 희: 가정에서는 찬성이지만, 기관은 좀 생각해봐야한다.
- 황진경: 주변의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 김광섭: 문제야 케어. 부모, 아이들과 소통불가.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부모교육은 있지만 불참하고, 상담교사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한다. 시청각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이름을 직접 불러 준다. 소통으로 인하여 탈락자가 현재로는 없다.
- 문 희: 학부모 교육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 황진경: 29명 중 10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년 2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김성철: 결혼가정이 아동센터에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 김광섭: 첫째, 담임 상담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클래스 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결국은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 정정숙: 부모책임이 가장 먼저이다. 아이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독립을 원한다. 또래모임에서 힘을 찾는다. 신뢰조사, 우울증척도 검사를 해서 조력을 위한 연계 방안을 찾는다. 위센터 연계, 부모 연계, 상태 알림(부모의 책임이 있을시), 1388연계 등. 학교에서 공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적응 못하고 또래 모임으로 간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김광섭: 문제 학생에게 편지 쓰기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을 쓰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에 신경 써야 한다. 학업 부적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 또래 집단이 아닌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한다. 학생 수가 많아 담임 교사가 힘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 정정숙: 누군가 끈을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 김광섭: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아이가 달라짐을 느꼈다.
- 김상윤: 위기학생들에게 관심을 못 가졌지만, 요즘은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도서벽지, 조손 가정, 센터 간 연계를 필요로 한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정숙: 부적응 학생 교육이 있다. 최대 3개월 정도다. 상담→학교→시간 정함→3개월 코스. 학교 생활 및 교직원에 대해 서로 파악하고 있다. 선생님이 센터 방문을 하고 있다.
- 결론: 아이들에게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기성세대의 관대함과 보수교육(연수)이 필요하다. 최소 2년에 한번이라도 승진이 아닌 자발성과 미래의 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들의 퇴출도 불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소통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썩은 고구마 자루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전체 고구마는 썩어버린다." 한명의 청소년이 중요하다.

주제 6. 교실이 행복해 지기

참여자 수	10	투표수	11
참가자	구신서, 김옥서, 민정기, 배홍영, 박성미, 정경숙, 김한숙, 양루시아, 신상훈, 이유영		

- 김옥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학생들 간의 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헌신'이 없어진 봉급쟁이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일 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가정내의 부모교육(0교시 폐지) 절실하고, 학교폭력 예방, 자살예방 등

- 도 효과를 거두어야 교실이 행복해진다.
- 정경숙: '행복' 아이들은 공부보다 친구 만나러 학교를 간다. 학생(친구)들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박성미: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한 부모(결혼)가정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오겠지 하는 생각에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교육과 복지가 분리되어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서로 소통하고 함께 교육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구신서: 교실내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사(담임)의 역할이 크다.
- 김한숙: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제재와 교정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교실 내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구신서: 한 두 자녀를 왕자와 공주로 키워서 학교를 보내면 평민교사가 가르친다는 사실이 교사를 힘들게 한다.
- 박난희: 학생들의 안전만을 보호해주고 주장하다 보니 교권이 실추되었다고 본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구신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 박성미: 요즘 학교 형태(남녀 공학 등) 중 바람직한 학교가 어떤 모형인지?
- 구신서: 가정에서도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듯이 교실 내에서도 여학생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신상훈: 문제 학생 뒤에 문제가정이 있다.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또래문화, 친구들 간의 대화, 상담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건전한 콘텐츠를 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구신서: 교실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는 어떤 의견인가?
- 정경숙: 주변, 주위의 어른들도 제재하기 힘들다.
- 김옥서: 학생들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스마트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남녀 간의 어렸을 때부터 서로에게 많이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구신서: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유튜브 셔플 등 교육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법?
- 박성미: 고가의 스마트폰은 분실 위험이 있어서 압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운동장, 교실 밖에 나가 부대끼며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김한숙: 스마트폰 때문에 교실 내 교육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다도, 전래놀이 문화에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실내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구신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규칙과 벌칙등을 만들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김옥서: 교복 공동 구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자치회에서 토론하여, 구체적으로 길이, 폭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켜나가도록 했다. 공동구매 기획, 입찰과정 등까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신서: 여기서의 얘기들은 성인들의 얘기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 임루시아: "서로 인사하기" 등이 필요하다.
- 박성미: 선생님들의 열정을 식히게 만드는 것이 학부모님들이다. 오히려 무관심한 학부모가 최고의 학부모이다.

주제 7. 인권조례, 어디로 갔니?

참여자 수	6	투표수	11
참가자	박기철, 이경자, 김옥서, 최성, 이희정, 문희자		

- 박기철: [전남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대한 설명] 인권조례 연대회의 의견 수렴 후 2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건의하였고,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상정을 2회 하였으나 모두다 보류되었다. 교육위원들의 보수적 성향에 의해서 보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도 안하고 반려되었는데 교육감이 교육의원에게 안에 대한 설명 또는 노력이 부족했다.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 이경자: 인권조례 제정시 오픈하지 않은 점들이 문제였다. 인권조례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충분히 오픈되지 않았다.
- 김옥서: 공동체 인권조례 즉 명칭의 문제가 있다. 3주체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나?
- 박기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므로 서로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최 성: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면 교권이 추락되지 않느냐의 문제, 교실 내에서의 억압의 기제가 작용하는 문화였지만 인간으로 대우하면 소통을 통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옥서: 중 2가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다. 소(핵)가족으로 인해 가부장적 사회로 인해 아이들의 인권도 없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밥상 머리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권조례는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부모교육, 가정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 3주체 끝장토론을 하자.
- 이경자: 인권조례 준비 시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들었다.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더라. 어른들이 갖는 선입견에 아이들을 얽매이지 말자.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존중해주자.
- 박기철: 인권조례가 없어도 살던 시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정과 사랑의 자리를 매가 자리를 대신했다. 매대신 인권으로 대체하자.

- 김옥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갔으면 한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박기철: 인권조례(안)에서 인권교육, 인권옹호관 등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도 추가 되었으면 한다.
- 김옥서: 학생회, 교무회의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최성: 법제화시 어려움이 많다.
- 박기철: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자.
- 문희자: 학생들이 없어 공허하다. 부모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최성: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주제 8. 다양성

참여자 수	12	투표수	9
참가자	노경희, 김재우 등 12명		

- 자녀들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즉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양성을 기르기 위한 학교환경 조성하기가 관건인데 다양성을 해치는 요건으로는 서열순위 매기기, 평가가 가지는 모순들이 있다.
 - 고재국: 다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특가적성을 개발해야 한다.
 - 박상욱: 다양한 삶을 원하기는 하나 사회의 제도권에서는 정형화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괴리감을 발생한다.
 - 박두열: 다양함을 해치는 요인으로 입시제도, 학벌사회이므로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 박기철: 제도권의 학교 수업만으로는 다양성을 육성하기는 힘들다. 부모들의 책임 무거워 객관식 시험으로 다양성을 해치는 요소이다.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박종득: 나와 다른점을 인정하기(다문화가정 등)등이 다양화의 길이다.
 - 이행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미흡하다. 그들의 값어치는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한다. 입시제도 주요 과목의 과중치로 특정과목에 치우치게 된다.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대안
- 박상욱: 일제고사 폐지, 더 효율적 학습으로 전혀 학생들의 학습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성을 위해서 일제고사가 폐지되어야 한다.
 - 박기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본질을 높일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개발해야한다.
 - 이행신: 각 개인과 삶을 연관시켜서 유기적으로 다양성을 육성해야 하고, 초등학교는 자율분방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 박두열: 교육의 목적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 박종득: 교실에서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박기철: 오늘 취합한 의견들에 대해서 도 교육감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주제 9. 공립 대안학교

참여자 수	9	투표수	9
참가자	임원택, 남세도, 이경자, 박초일, 이희정, 백동규, 문상엽, 문희자, 박수경		

- 백동규: 가정불화, 건강상, 부적응향상,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시설 대안 학교도 있다. 프로그램 지원, 조례내용과 대안학교 운영이 연관되는지 궁금하다. 기숙형 대안학교인데 소년원도 대안교육기관인데,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임원택: 곡성 한울고 개교를 했는데, 함평과 보성에도 2개 개교(2013년)예정이다. 학교부적응 학생들 문제가 일반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 남세도: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난다. 군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한다. 세급확보(예산)를 위해 아동센터에서는 주소지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소외계층 아이들이 나중에 군대를 어떻게 가게 될지 우려가 된다. 지역의 아동센터와 대안학교가 연결이 된다면 좋겠다.
- 박수경: 학생들은 알겠는데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인지, 그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지?
- 임원택: 특별히 대안교육에 대해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없다.
- 박수경: 문화예술을 전공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다. 정책적으로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백동규: 교육복지사가 학교 내에 근무하고 있다.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성과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 목표의 경우 19개의 학교에서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 남세도: 예전에는 학교복지사가 있었는데 성과가 좋았지만 없어지고 다시 교육복지사로 이름만 변경되었다.
- 문상엽: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의 차이가 어떤지 궁금하다.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 임원택: 20%특성(문화예술) 통합교과를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안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지역의 여건과 특성화 될 수 있는 대안 학교가 필요하다.
- 문상엽: 특수성을 살려서 대상자를 분류하고 다시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다니게 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또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 박초일: 아이가 자주 아파서 학습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 이경자: 입시에 시달릴 아이를 다르게 키우고 싶다.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학부모 인식에 문제가 될 것 같다.
- 임원택: 우리나라에 학교에 대한 형태가 다양하다. 정신적 질환이 있는 아이,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는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 문희자: 대안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다양한 학생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수급과 지도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하고 있는지? 대안학교 학교장에게만 모든 것을 (학교수급·재정·학생수) 책임질 것인가?
- 임원택: 대안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은 안되었지만,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질문(제안)을 계속하겠다.

주제 10. 거점 교육지원청 개선

참여자 수	5	투표수	9
참가자	최영용, 구신서, 민정기, 구본용, 배호영		

- 최영용: 비거점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시 광역(3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안 됨.
- 구신서: 추진배경은?
- 최영용: 교육부의 청렴방안 중 부패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 구신서: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 최영용: 시도마다 다르다. 하고 있는 곳과 안하는 곳, 일부만 하는 곳 등도 있음. 인센티브 및 눈치 보기 등으로 추진을 시작했지만, 학교장은 불만이 많음.
- 구신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까?
- 최영용: 예
- 구신서: 그렇다면 추진배경에서 밝힌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는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까?
- 민정기: 전산, 보건급식은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문성이 담보되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을 전문성 신장차원에서 보았으나 시설부서 내 팀이 2개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점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타 지역은 우선순위에 서 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 구신서: 시설을 원위치 시킨다면 시군교육청의 임무와 역할이 관리직은 기존일이 70~80%이면 교육직은 신규 사업이 70~80%가 되었기 때문에 지사에서 지원으로 바꾸자는 의미를 살리려면 시설직이 각 지원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최영용: 일반 행정의 업무와 시설 업무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르다. 행정직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시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 구신서: 어떻게 시군교육청이 학교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가?
- 민정기: 행정직의 존재 의미는 교육지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 구신서: 시군교육지원청의 인력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최영용: 시설직은 재난피해복구, 교과교실제 등 시설관리 분야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을 다루기보다는 즉각적인 대처에 행동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구신서: 구본웅 선생은 하시는 일은?
- 구본웅: 사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정기: 이상만 보고 세부적인 시스템은 보지 않는 것이 사상누각입니다.

주제 11. 가슴 뛰는 삶

참여자 수	7	투표수	8
참가자	강경자, 박상욱, 조용, 최대욱, 성정례, 최은정, 박상규		

- 조 용: 학생들을 가슴 뛰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장애아들을 보며, 장애아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때 부모님의 가슴이 뒹다. 공지영 작가 사람은.. 책에 내용을... 사랑을 할 때 가슴이 뒹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교육청에서의 장애아 부모들 “장애인 철폐” 노래를 들으며 가슴벅찬 감격을 느꼈다.
가슴뛰는 삶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슴이 뒹다.
- 현미: 음악을 즐기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뒹었다.
- 박상욱: 사랑할 때, 비전, 꿈에 도전할 때 가슴이 뒹다. 꿈-학교-아동에 눈높이를 맞춰줄 때, 아동의 꿈을 찾게 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제시해주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통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좋아하게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할 때 가슴이 뒹다.
- 최대욱: 이성애에 대한 사랑, 목표를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 박상욱: 격려의 말, 감정공유를 해줄 때, 상대방 존중, 배려 사랑, 기대 설레일 때 가슴이 뒹다.
- 강경자: 사람을 사랑할 때 가슴이 뒹다. 내가 먼저 가슴이 뛰어야 가족, 친구, 내가 있는 그곳이 가슴 뛰는 세상이 만든다.

주제 12. 학교폭력 대책

참여자 수	14	투표수	7
참가자	서정분, 최승규, 신경호, 양선희, 전성원, 김성숙, 최성, 권말녀, 정승원, 김명중, 조옥희, 홍영택, 강선영, 장복남		

- 조옥희: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회장이다.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발성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성이 떨어진다. 학생기록부기록사항 기재 여부에 대해 논의해봤으면 한다.
- 정승원: 전교조에 가입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교육 대상이라기 보다는 가피해자 대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서정분: 학교폭력 교육 시스템 구축되어 있지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대상 교육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정승원: 학교 폭력 주제가 왜 현재 부각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

되지 못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 김명중: 기록부 기재 여부에 대해 말하자면, 교과부 지침 매뉴얼이 있지만 입시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다. 경쟁유발, 학교 현장에서 적용 여부에 대해 강제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기재부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사관련 징계 등이 그것이다. 교육감의 관련 지시사항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훈계, 전학 권장 등 적용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단기교육보다는 지속교육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대안교육 적용 시 현장 교육의 적용성 부족하다. 학생부 기재 여부보다 대체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단체의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홍영택: 강제 전학,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구체적인 예방 대책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다. 결손 가정, 독선적인 성격 등의 관련 학생들의 조직화가 문제된다.
- 전성원: 결손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해 학부모입장(가해자)에 이견이 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쌍방의 의견 맞추기나 일시적으로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군 단위보다는 시단위에서 학부모간 입장차가 확인하다.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해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 홍영택: 합의 조정이 어렵다.
- 김명중: 합의조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로 고려되고 있다.

주제 13. 교육주체는 누구?

참여자 수	6	투표수	6
참가자	조용, 권말녀, 전성원, 황진경, 권혜경, 박상규		

- 박상규(지역아동센터) : 교육의 주체는 모두이다. 학교, 학생, 부모, 교사 등 예) 교사→지역아동센터에 학교가 교육의 주체다.
- 권혜경(전교조): 현재는 국가가 교육의 주체이다. 잘못 됨. 교육의 의미를 학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황진경(지역아동센터): 교육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 전성원(혁신모): 교육의 주체는 교육이다.
- 노경희(순천교육공동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본인, 자기, 학생이어야 한다.
- 전성원: 삼위일체의 교육주체가 되어야 한다.
- 권혜경: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삼주체)
- 박상규: 국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조정역할을 하자.
- 조용: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삼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학운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자.

주제 14. 교과서, 부교재

참여자 수	6	투표수	5
참가자	김효승, 김태문, 권말녀, 송지연, 장이석, 김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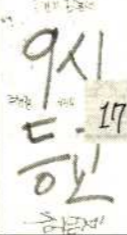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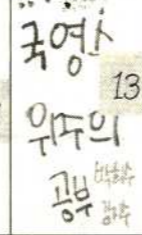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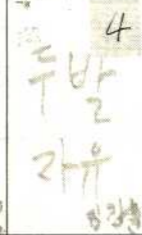
- 장이석: EBS가 문제가 많다. 교사의 역할을 없애 버린 것이다.
- 김태문: EBS 방송보면 되려 학교 갈 필요가 없다.
- 송지연: EBS가 교육을 오히려 시험위주, 입시위주로 축소해버렸다.
- 김태문: 10년 후 살아갈 때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이 적당한가?
- 권말녀: 현재 교육내용이 미래에 적합한가?
- 김태문: 현재 입시제도에서는 교과서가 쓸모가 없다. 교육이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이용되었다.
- 권말녀: 교과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사물함에 보관되어있다. 가방에 문제집만 있다. 우리 특기적성이 중요하다.
- 권말녀: 학교 성적으로 성공확률 적다. 특성화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따로 떨어져야 한다. 100년 대계로 가야 한다. 교과서에 충실해야 한다. 교사가 지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한다. 부교재는 수업시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기 능력에 따라 선택한다(학습 능력 등). 아이들의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EBS 교육방송은 문제가 많다. 교사의 가르치는 교권에 심각한 도전이다.
- 장이석: 부교재의 위법성에 대한 부각이 필요하다.
- 김정숙: 교사가 만든 부교재 채택이 필요하다. 학습량은 줄이고 경비는 절감할 수 있다.
- 송지연: 부교재 채택이 개인별로 교재값을 거둘 수도 있지 않나?
- 장이석: 돈 수수는 안됨.
- 권말녀: 학운위에서 의결하면, 학교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 김정숙: 전 교사가 해야 한다. 학부모 부담 가중이 심화된다.
- 장이석: 학교 부교재 사용 못한다.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 권말녀: 다른 동료교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부교재 만들어 실시하자.
- 김정숙: 부교재 채택으로 인하여 교사 이미지도 아이들에게 훼손된다.
- 권말녀: 학력위주 평가가 문제이다. 입학사정관제도 문제이다. 성적순으로 모든 것 해결한다.(특히 적성 무시된다.)
- 박두열: 모든 것이 학업성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문제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펼쳐진다. 학생 개개인 소중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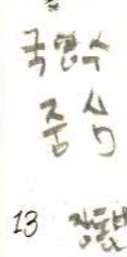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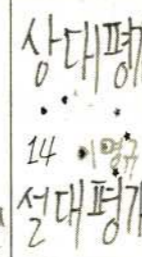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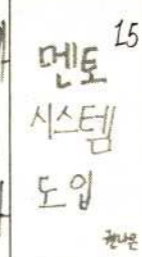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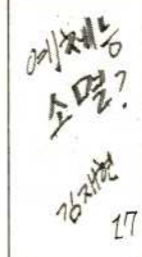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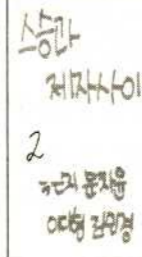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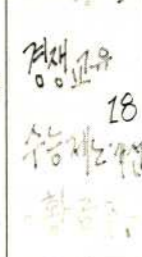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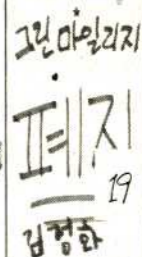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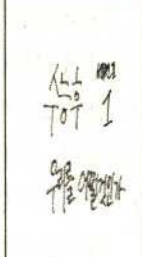
주제 15. 교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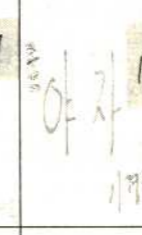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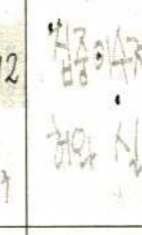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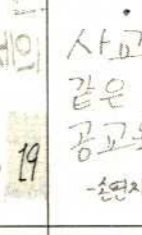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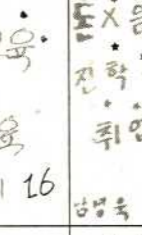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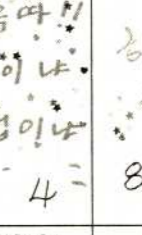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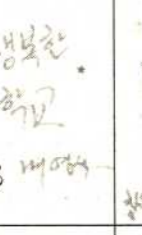

- 잠자는 아이들, 휴대폰 사용 → 교사의 수업방법과 소통의 문제인가
-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는 원인들 - 핸드폰 등 - 선수학습(학원) - 입시제도 - 학교=학원 (관계 맺음)
- 수업전문성 확보와 교권 확립이 필요하다.

나. 창원 오픈스페이스

□ 브레이크아웃 세션(주제)

							
9시 등교	국영수 위주의 공부	수준별 수업 해야 하는가	야자 시간	두발 자유	야자 학습을 누구 위한 것인가	공교육의 질 강화	사교육 빈부격차

							
국영수 중심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멘토시스템 도입	예체능 소멸	스승과 제자 사이	경쟁교육, 수능제도 개선	그린마일리지 페지	수능 후 어쩔 것인가

							
동아리 활성화	야자	집중이수제의 허와 실	사교육같은 공교육	돈 없다! 진학이나 취업이나	행복한 학교	이과 문과 나누어야 하는가	기타



□ 브레이크아웃 세션(회의록)

주제 1 . 졸업 후 취업 진로 문제

참여자 수	12	투표수	48	세션	2-1
참가자	진행자: 남영욱 참가자: 최현재, 김궁배, 심연봉, 김범석, 조민제, 김바울, 김강훈, 한영준, 박진욱, 장준호, 박우근				

■ 토론 내용

경쟁위주의 스펙 쌓기를 중시하는 교육(학교)제도, 풍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다.

-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 더좋은 직장, 직업을 얻기위해서
- 남영욱: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열악한 생산직 사원(막노동 패턴) 한계
- 대학졸업자 일자리 문제가 심화 - 풀리택에 재입학후 취업도전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선택의 어려움
- 장준호: 마이스터고 선택을 주변에서 반대해서 일반고 진학 - 대학선택으로 취업기회 모색: 경제, 금융쪽으로 진로모색
- 박진욱: 일반계고교 생활이 너무 타이트해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체험의 기회가 없어서 한계가 많음
- 조민제: 대학진학시 적성보다 성적에 맞춰서 선택하는 현실
- 김범석: 취업을 우선하고자 하지만 사회현실은 대졸자 우대로 마지 못해 대학 진학을 선택
- 최현재: 처음에는 취업을 우선: 자격증 11개 취득, 고졸자가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어려움 <대기업 정책 신뢰부재>, 경쟁사회 현실에서 고졸<특성화고>의 한계로 대학진학으로 선회
- 남영욱: 사무직보다 현장직(생산직)이 정년보장 비율이 높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
- 최현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주장하지 말고 현실(조건)에 맞게 모색
특성화고 졸업후 진학과 취업: 무한경쟁탈피 전국기능대회에 메달중시
- 사무직과 현장 생산직의 가치와 인색의 차이를 극복

주제 2. 수능 후엔 우리들을 어쩔 것인가?

참여자 수	9	투표수	37	세션	1-13
참가자	이**, 김수경, 강선화, 김예린, 장혜령, 박지민, 이성규선생님, 표정필, 조묘령선생님				

■ 토론 내용

- 해야할 공부×, 학교에서 준비한 교육도 마땅히 ×
- 수경: 수능끝나면 자유, 공부×, 자기하고싶은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혜령: 전문대 같은 경우는 자격증취득(수능이후)
- 선화: 계획, 성형이나, 알바, 시간낭비, 자기관리
- 정필: 누구나 12년동안 공교육을 받아왔고 수능이후의 시간은 이때까지 받아왔던 교육에 대한 보상
- 이성규선생님: 수능이후의 교육과정편성에 따라가줘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힘드니
- 대안 찾아보기
- 수능이후에도 학교에 필요한 수업시수는 꼭 채워야하기 때문에 실생활이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거나,
- CA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남은 기간동안 채우자
- 3학년때 하지 못한 CA활동을 남은 기간동안 하거나
- 국가에서 정한 1교시부터 4교시를 수업대신에 한다면 수업시수를 줄여야 9월 학기제로 바뀌야, 수능이후에 수업시수를 단축하거나
- 결론
- 올해: 원칙 등교시키거나, 조금 늦추거나 정규수업까지만 하자.

주제 3. 행복한 학교

■ 토론 내용

- 주제선정의 이유 - 힘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학생들의 행복하고 소소한 미소를 볼 때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 선정자의 생각 - 사회의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인식도 바뀔 수 있다. 큰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 참여자들의 생각
- 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 -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 --> 큰틀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니까 교복자율화처럼 작은것부터 바꾸자. 그리고 교사도 상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동아리의 활성화, 그린 마일리지제도의 폐지, 급식과 애정의 활성화, 장애인 학생의 복지
- ③ 일본과 선진국들처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국,영, 수 중심의 수업을 좀더 자유롭게 바꾸면 좋겠다.
-> 출세우기 보다는 협력으로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
-> 예전의 농사, 집안일을 하찮게 보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고로 "강압적인"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율성을 길러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지금의 현실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나이가 늘면서 시간만 늘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 지금은 학교와 학생이 평가 받는 것과 더불어 교사까지 평가받는 시대이다.
- 선정자의 정리 - 모두 의견이 수반되는 때 교사와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주제 4. 공교육의 질강화

참여자 수	11	투표수	30	세션	1-8
참가자	진행자 : 안주현 참가자 : 강동욱, 노대현, 박수창, 신지호, 신태환, 박정현, 이하은, 심선우, 강경희, 강수빈				

■ 토론 내용

- 공교육진행자 선생님에게 질을 높일수 있게(교원평가제 실질적활용, 재교육(수업의질))
- 교과목선택이 가능하게 편성(사탐, 과탐, 비교과)
- 선생수가 늘어나 경쟁이 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
- 내신과 수능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내신공부하는 것이 수능공부가 되어 따로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수능: 양보, 공교육: 진보)
- 대학서열화를 없애야 함(서울1대학, 2대학/ 경남1대학, 2대학)
-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줘야해. 고등학생은 입시제도의 희생양, 학생을 배려하지(신경쓰지) 않는 정책은 무의미(교육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 교육이 바뀌는데는 50년이 걸려, 정책 담당자의 임기를 10년 정도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 추진(2년마다 바뀌는 제도는 혼란만 가중)

주제 5. 사교육의 현시점

참여자 수	20	투표수	26	세션	1-9
참가자	진행자 : 주혜수 참가자 : 박주희, 주혜진, 박지민, 김재현, 박지수, 변명주, 홍석한, 정민규, 우치규, 김주원, 심형식, 류명인, 조현진, 조수민, 한동인, 윤지수, 김주원				

■ 토론 내용

- 우리는 효율적인 토의를 위해 찬성, 반대를 나눠서 해봤는데 찬성의견은 부족한 과목을 주말 동안 보충을 할 수 있고, 사교육의 격차는 부모들이 학생에 대한 믿음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진다.
- 일년에 48만원에 PMP가격이면,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비싼 고액과외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로도 보충을 할 수 있다.
- 또한, 사교육도 학생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식 때문이므로 그 인식부터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나왔다.
- 사교육에 대한 반대이견은 가난이 가난을 낳고, 부가 부를 낳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고, 한달에 몇만원조차 내지 못해 사교육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 그리고 우리지역의 사교육과 강남권의 사교육의 가격과 질이 다른 것 또한 사교육에 의한 격차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결론

-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 사교육에 대한 비용정도를 줄이거나

- 학교의 보충수업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주제 6. 수준별 수업반대

참여자 수		투표수	26	세션	1-1
참가자	진행자: 김민경				

■ 수준별 수업반대

-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좋지만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음 분위기 ↓ 상반애들이 하반 애들 놀리기 때문. 상반- 잘하는 더 잘함, 하반- 개념더못함 실력향상, 수준차이 유지.
- 고1 수&영 -> 제대로 × 고2 × 성적변화 × 만족 ×
- 나는 이져있는데도 심화 수업아닌 이상 다름바 × -> 효과 ×
- 교과교실이동 귀찮음, 분위기 ↓
- 열등감, 빈교실 ->도난사고(경험)
- 수&영 장기간 - 열등감(역효과)으로 성적 ×, ex)수포자
- 핀란드-경쟁<협력, 우리나라 불가능, 체계적->효과
-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족 =>불가능, 예체능 수포자(문과)절반, 하반- 공부하고 싶으나 -> 분위기 × ->손해 시간낭비(하반 분리)
- 선생님-편견가질 수 있다. 똑같은 교과서인데 왜 아냐? 차라리 방과후 심화 수업이 더 효과적

■ 찬성

- 잘하는 -원활 수업, 못하는 -속도 밀려서 안된 질문 × 선생님- 수준맞는 수업(하반 구체적 수업) 수준↑, 자신 수준 맞게 각자에게 맞게
- 하 - 열등감 갖고 공부->동기부여 나쁘게 ×, 새로운걸 찾아내서 학습
- 상 - 상반 - 시너지 효과
- 벌써부터 열등감, 뒤로 미루고 피하는 행동 - 소극적
- 시스템 불가능 항의 -> 중고 교과교실 지령, 이번년도부터 하고 있음
- 차이는 있지만- 잘푸는 - 이해해주는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 들어야 함. 못푸는 - 시간 많이 든다. 문제
- 분위기 학생들이 만든다. 하반이어도 듣는 만큼 오르는 것 수준이 다름. 분위기 안좋은건, 상반 애들과 섞이면 더 안 좋음. 일부 때문에 진도 느려지면 안됨

■ 반대

- 분위기 ->고2되면 예체능 수학 필요× 열정 때문에 분위기 ×
- 2반에 있을 필요 없다. 고쳐야할 점은 개선해 나가자.
- 현실적으론 의미가 없다. 수준 비슷비슷(바닥제외), 선생님수 모자란다. (이상적이다)
- 학원에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친구에게 물어보며 같이. 멘토&멘티, 협력, 윈윈, 성적

■ 찬성

- 다른 친구들 수학 필요 일부가 분위기 흐림, 더하고 싶은 아이 -> 열심히 따라서 상반
- 중하반은 기초부터 가르치자. 딱딱하게 X, 여유롭게 재밌게
- 상반은 선생님께서 더 필요한 부분 보충
- 수포자 의심 보단 더 낫다. 제도 바로 실행 안됨. 차근차근 개선해 나감.

주제 7. 스승과 제자사이

참여자 수	6	투표수	24	세션	1-15
참가자	진행자: 문차운 참여자: 이다현, 박은지, 김민경, 허인수, 박종훈				

■ 토론 내용

- 취지: 고등학교, 중학교
멘토, 끈끈한정, 책이외의 지식->없음
좀 더 진실성 있고 끈끈한 관계를 --?
- 허인수선생님, 의문의 수십개 초콜릿에피소드 ↓
“부담임” 선생님의 배려 → 실질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현실 그런데도 왜?
1. 반티를 세심하게 제일먼저 갖다드림: 주위의 부러움->교사로서의 뿌듯함.
스승의 날에 정중하게 부담임 선생님을 챙김 -> ”
2. 부끄럽다. 평소에 챙기지 못했던것 -> 이미 관계가 많이 들어진것에 대한 반증.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생소해진 학교 현실
- 이다현: 과거와 현재의 학생들은 달라졌는가? 왜 멀어졌는가?
- 박종훈선생님: 과거-“매주 꽃 한송이가 꽃병에” -> 과거 사제간의 관계의 상징적인 모습
현재-> 반드시 회귀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성을 넘어 더 정이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 허인수: 1. 큰경향성: 사제만이 아닌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긴 장벽(사회적 경향성)
2. 정(관계)->개인, 물질->마음 중심
- 유독 학교가 심한 이유-> “경쟁” ->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학교의 현실
- 물질중심- 과거: 교육에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왜곡된 현실
현재: 학생도 선생님도 물질적 가치에 치우친 현실
- 문차운: 성적에 따라 학생을 (어느정도) 평가하게 되나요?
;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그런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 에피소드: 학생을 아주 세심하게 챙기며 성적을 신경쓰지 않으시는 “드문”선생님
* 학생들의 태도- 자격지심, 반항적 요소, 표현방식의 어설피름(본인들의 성적 의식)
- 박은지: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무분별한 체벌, 기합)
- 허인수선생님: 관리, 색출, 처벌등의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분들->잘못된것 맞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않다. 현재는 교육계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도기이기도하다.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은 그런 어른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 이다현: 요즘 아이들의 이기심?

- 허인수선생님: 언제나 이기적이고 욕심있는 사람은 있어왔다. 상위1%의 소금이 물을 썩지 않게 했던 것 앞으로는 더 범위를 넓혀 시민지성, 대중지성을 발달시켜야.
(ex) 시민단체(인권등), 운동을 존경하고 보상하는 사회를 참여(“참여”의 가치)로써 만들자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보상하는 사회-> 다양한 학생이 인정받는 사회
- 이다현: 선생님들 스스로 만드시는 높은 장벽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저희를 막아요~(진로)

주제 8. 9시 등교

참여자 수	14	투표수	24	세션	1-2
참가자	진행자: 허은제, 배영식 쌤, 서기: 지민이 참가자: 박지민, 주현정, 김수경, 이연진, 조묘령, 김예린, 이미지, 권나은, 김영서, 손연지, 배영식				

■ 토론 내용

- 찬성: 자기관리 시간부족, 아침 자율학습(영어듣기)너무 - 효율적이지 X, 집중 X 내부에 - 도덕적 개인, 비독적 사회(개인이 사회에 있으면 도덕적이기 어려움)
- 반대 - 학교 이미지 실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힘들다. 시간을 늦춰도 지각생 발생
- 대책-> 1교시에 CA활동 - 자기가 하고 싶은것-> 집중↑, 긍정적 에너지, 재미있는 학교생활, 아침체조

주제 9. 멘토 시스템 도입

참여자 수	8	투표수	24	세션	2-5
참가자	진행자 : 권나은 참가자 : 백승은, 장수현, 안채은, 하소희, 김재무, 여은진, 김단성				

■ 토론 내용

- 멘토- 멘티 짝을 이루는 기준?- 성적순? or?
성적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정신상담이 중요
선배와의 멘토시스템 -> 사회로 나갈 때 도움 but 성적 멘토->부담스러움
- ‘멘토’라는 개념을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인생의 개념, 상담) -> 어떤멘토?
- 아이들의 직업 다양 -> 다 멘토-멘티를 찾기는 어려움, 자신의 희망진로에 맞는 멘토 찾기도 힘들
- 멘토가 되면 메리트(봉사점수 등) 주는 정책 -> 찾는데 도움될 것 -> (멘토- 멘티 모집)
- (국가 교육청 차원) 멘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제도화 -> (자격 검증필요)-> good
- 다수의 문제점 -> 너무 많은 멘티 부담, 연락 힘들
- 학교내 멘토-> 학생 -학생 : 서로 바쁘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 X => 큰 효과 X
선생님- 학생 :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 모자라/ 다른 선생님들 ->업무 多 멘토까지하기엔 바빠
- 멘토: 인생 선배-> 노하우 전수) ‘학생-학생’은 적합하지 않음
-> (학교단위) 졸업생, 일반 어른들(학생들이 희망하는 부류)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학생- 졸업생, 전문인)

- 문제점 - 진로가 × 학생들-> 찾아가기 힘들, 성적몰두
-> 꿈을 찾아주는 멘토, 다양한 멘토를 만나 찾아가며 해결 가능
- 필요한 것을 직접 찾는, 서로서로에게 소개,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 + 시스템 구축

주제 10. 우리나라 교과 너무 국영수로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여자 수	8	투표수	23	세션	2-3
참가자	진행자 : 장동빈 참가자 : 이민구, 김금영, 김선주, 권아름, 윤은주, 심형식, 한명자				

■ 토론 내용

- 체육, 음악, 미술등을 통하여 그 능력들을 키워가야 한다.
-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치우쳐져 있다.
- 국영수 중심이 되면 학생을 판단하기에 적절하고 학생 입장에서도 국영수 중심이 되면 공부하기 편안하다.
- 여러분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영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 국영수 위주로 하면 실력이 늘어나는가?
- 계속해서 국영수의 진도가 빠르면서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 체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라도 체육이 필요하다.
- 음악, 미술도 공교육에서의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 대학이후에 삶에서 국영수 이외의 교과목들이 필요하다.
- 창의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고 도구화된 교육의 부작용이 아닌가?
- 국영수만으로 교양적인 능력을 가져 이사회로 나갈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입시라는 현실에서 바꿀 대안이 필요하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대학 서열과과
- 국공립 네트워크 활성화(대학 평준화)
-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 고졸에 대한 높은 임금이나 평균적으로 가야된다.
- 미국 같은 스타일의 자신의 학과를 위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 다른 과목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입시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바꾸어나가야 한다.
- 교육정책을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주제 11. 실속 없는 그린 마일리지 폐지

참여자 수	22	투표수	22	세션	2-8
참가자	진행자 : 김정화 참가자 : 허옥희, 박희수, 김지수, 천연주, 강동욱, 박지민, 장문경, 최영주, 설재은, 노은형, 신유진, 조희태, 전재현, 김우중, 노대현, 주현정, 허은제, 이동현, 이승윤, 김민수, 김도경				

■ 찬반

- 찬성: 16 반대: 2

■ 찬성

폐지에 대한 찬성

- 폭력대신 벌점만 주고 끝나면 대중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안하는, 즉, 오히려 반항할 수도 있다.
- 주로 RP만 주고 BP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BP의 장점은 안보이게 된다)
- 그린 마일리지에 대한 정당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남용이 많이 되고 있다.
- 교사와 학생 둘다 피해를 입는 제도이다.
- 그린 마일리지의 목적상이 없어졌으며 선생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해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형식적이고 강압적이다.

■ 반대

- 벌점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 제도는 좋은것 같다.
- 학생들이 잘할 때도 Blue point를 주니까 상관없다.
- 우리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다.
- BP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들께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만 고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 대안

- BP를 더 부각시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 그린 마일리지를 만든 진정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교과부에서 선생님들께 직접 지침을 주어 이 제도에 대한 의식을 올바르게 깨우쳐야 한다.
- 포인트가 악용되면 오히려 안먹히니 벌청소를 시키는게 낫다.
- RP가 생기부에 올라가는 것처럼 BP도 생기부에 올라야 한다.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 그린마일리지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 BP를 활성화 시키는 쿠폰같은 것을 시행한다.
-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폐허된 실적을 올려야 한다.

■ 결과

-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악용이 많이 시행되며 선생님과 학생들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위에 대안책과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거나,
- BP에 대한 개념과 BP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제 12. 예체능 소멸?!

참여자 수	9	투표수	21	세션	2-6
참가자	진행자: 김재현 참가자: 서상필, 홍석한, 하수영, 조수민, 조현진, 한동인, 윤지수, 한정석				

■ 토론 내용

- 요즘 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과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국영수 위주의 학습과 현실에 직시하는 교육, 집중 이수제가 문제로 제기된다.
-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다.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 과목을 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을 과목보다는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예체능이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사회생활에 나가게 되면 운동, 예술 측면이 더욱 필요하다. 사람들이 모이면 축구, 야구, 테니스,, 노래방 등등 문화를 즐기는데 문화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 대학에서 예체능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건의 밖에 없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만 맡겨진 교육이 예체능을 막는 경향도 있다. 예체능을 살리자!

주제 13.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참여자 수	16	투표수	20	세션	2-4
참가자	진행자: 이명규 참가자: 황희상, 강명주, 이동규, 이명규, 천주영, 문진현, 박주희, 주혜진, 주혜수, 이유정, 김민경, 이혜영, 김주원선생님, 강연극, 김재경				

■ 토론 내용

<상대평가>

- 장점: 절대평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험의 변별력 문제해결
- 단점: 우리나라의 경우 이례없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친구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함.

<절대평가>

- 장점: 자신의 실력을 비교없이 높일 수 있는 의식이 마련된다.
- 단점: 난이도 낮은 평가에 따른 변별력 저하 우려
=> 과도한 경쟁이 생기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시행하되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시행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해결>

- 자기학교의 위신을 위해 쉬운 문제를 내는 문제 출제자와 평가기준을 감시하기 위한 교육청으로 부터의 감시
- 수시로 치러지는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임

주제 14. 집중이수제의 허와 실

참여자 수	12	투표수	20	세션	1-7
참가자	진행자: 하소희 참가자: 김민경, 황금주, 박은지, 이다현, 백승은, 장수현, 안채은, 진유림, 김재경, 강연주, 박혜진				

■ 토론 내용

- 김민경: 장:공부하기 편함. 한과목집중 -> 시험공부편함
- 황금주(교사): 1학년: 국사5(집중), 골고루 배치 × 체육의 집중수업, 예체능=>인성육성에 필요한 수업의 비율감소, 학생&교사 둘 다 힘든 경우가 많음
- 배경: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선생님의 T.O가 줄어든다. 교사수의 조정
- 박은지: 제도적 기반미비
- 진유림: 부담감소 ×, ex) 동아시아사의 경우 방대한 범위->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함
- 문차운: 탐구과목->과학의 경우 중도포기 학생의 비율↑, 과목선택의 다양성↓
- 보완하기 위함: 폐지 or 8과목의 과목 수 축소, 과목의 다양성
- 폐지를 하게 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제도
- 과목선택의 기회 ->집중
- 중->고등으로 올라올 때 탐구 선택, 배경은 학생 취향의 존중임.
- 탐구영역의 경우, 더 많은 교사를 고용(편중의 문제가 생김), 선택권보장, 교육예산↑

주제 15. 국, 영, 수 위주의 공부

참여자 수	11	투표수	13	세션	1-3
참가자	진행자: 박희수, 김지수 참가자: 천연주, 허옥희, 김정화, 이동규, 이명규, 천주영, 황희상, 강명주, 문진현				

■ 토론 내용

사례: 방학보충수업, 학교 보충수업, 국영수 중요성 인식

- 사람의 능력은 국영수 만으로 나눌 수 없다.
- 국영수로만 하니까 지루하다.
-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자. 책만가지고 수업 ×
- 국영수 중요성 인식.
- 필요하지만 너무 편중되어 문제다
- 국영수는 대학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 국영수 위주 수업 때문에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있는 추세이다.

■ 대안 찾아보기

- 창의적 시간 ↑
- 외부간접 필요 - 국가차원

- 다른 과목 시수를 늘림
- 교육감, 대통령등의 선거를 잘 해야한다.
-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교육감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
- 다 국영수만의 과목은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폐해이다.
- 그러므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국영수외의 과목의 시수를 늘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제 16. 야자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가

참여자 수	4	투표수	21	세션	1-4
참가자	진행자 : 이민규, 참가자 : 진인애, 장동빈, 김바울				

■ 토론 내용

- 야간 자율학습은 자기가 희망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한다.
- 진인애: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경주: 교장, 교감들이 야자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야자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권을 주어서 학생들이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
- 진인애: 강제적으로 해봤자 아이들은 자거나 할 뿐이다.
- 장동빈: 집에 갈 시간이 적어져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싸우고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야자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 한영준: 자유를 많이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 야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 김바울: 야자시간이 되면 폐쇄된 자리에서 질문도 못하고 공부를 해야한다. 야자시간을 해결할 실천지침이 있어야 한다.

주제 17. 동아리 활성화

참여자 수	9	투표수	18	세션	1-11
참가자	진행자 : 박정현, 참가자 : 서상필선생님, 김민정, 가은경, 이성규, 이유정, 김우중, 전재현, 조희태				

■ 토론 내용

- 박정현: 주5일제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시간이 줄어든것 같다.
- 문성고 2학년 오빠들: 반장, 동아리장인데 동아리 시간이 줄어든 것 같다. 동아리랑 입시랑 관련이 있는데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알고 싶다.
- 가은경: 선생님이 만든 동아리에 학생들이 억지로 들어가는 것 같다.
- 이성규: 학생들이 원해서 만든 동아리고 선생님보고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 박정현: 우리학교는 축제때 동아리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동

아리가 우리학교에는 많은것 같다.

- 가은경: 이전의 학교운영방침이 어땠든 학생들이 요구를 많이 해야한다.
- 이성규: 예전의 내가 운영하던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가 초빙을 학생들이 원해서 초빙을 했었다. 이것처럼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상필: 환경도 중요한것 같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한것 같다. 다른 학교 대부분은 동아리 시간을 교과수업으로 메꾸지 않는것 같다.
- 이성규: 의식이 중요한 것 같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한다.
- 가은경: 활동할 시간이 없어서 동아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무대에 올릴 동아리가 없다.
- 이성규: 옥상같은 곳에 동아리 활동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활동실이 부족한것 같다.
- 서상필: 학생회에서 계속 매달 동아리 활성화를 요구하면 학교장이 학생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주제 18. 경쟁교육 - 수능제도 개선

■ 토론 내용

- 수업시간에 다른 교과 공부를 하는 경우
- 고등학교 과정: 대학입시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없음.
- 수능제도 : 입학사정관 - 학생 포트폴리오(봉사활동, 체험활동)-> 대학입시로 변질 대학입시만 생각하는
- 경쟁교육은 학생들에게 힘들고 -> 다른 대안은 ?
- 경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경쟁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경쟁이 과열된 현상의 문제점
- 토론식 수업에 대해 익숙해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수시가 끝나고 난후의 고3 교실
- 대학은 취업의 문제, 사회적 문제
-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 개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 자기발전의 시간을 주어야 함.
- 북유럽-> 복지제도 잘 되어 있음
- 사교육 : 과열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 경쟁교육 -> 협력교육, 공동체 사회
-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도덕적 문제가 발생: 기회주의자로 교육되고 있음. 강박한 심정
- 학교 : 사회화 과정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 스펙쌓기->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으로 전략
- 대학 간판 위주의 사회 제도 개선
-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 -> 교육과열이 안됨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모두 똑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
-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

주제 19. 야간자율학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참여자 수	5	투표수	15	세션	1-6
참가자	진행자 : 최윤영 참가자 : 최세영, 이재영, 이다운, 강동호 선생님				

■ 토론 내용

- 이다운: 본인은 야자로 인해 더 공부능률이 올랐다.
- 강동호(중립):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신뢰를 못해서 가르치다.
- 최세영(반대): 부모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 입시생이 있는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 최윤영: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억압받는 시대가 아니다.
- 이재영(반대): 야자는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한 학교를 위한 방침이지 우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최세영: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적성을 찾을 수 있다.
- 이재영: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옛 선생님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재영: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모두 강제로 해야하다보니 더욱 더 분위기가 나빠진다.
- 최세영: 대학은 야자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창의적인 활동은 요구
- 강동호선생님: 그것은 인정한다.
- 최윤영: 부모님은 아이들의 결정을 실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 이다운: 예체능을 찾은 친구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하지만 꿈을 ×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
- 최세영: 타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른 진로를 위한 활동필요
- 이재영: 괜찮은것 같네
- 최세영: 건강상의 문제
- 이재영: 이사문제
- 최세영, 이재영: 비만, 소음, 공기가 안 좋다.
- 이다운: 공기가 안 좋은 것은 홈스쿨을 해야하지 않나?
- 최세영: 선생님들의 흡입력이 적어 못한다. 결국 학원을 감
- 강동호: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할 문제가 많다.
- 이다운: 선생님의 성격도 존중해야 함.
- 강동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잘못된 판단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 대안 찾아보기

- 야간을 정말로 자율화시킨다. 단,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면 선생님 약간의 의견을 낼 수 있다.
- 아이들이 기분나쁘지 않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타이른다.
- 야자를 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주제 20. 남녀 합반

참여자 수	5	투표수	10	세션	1-12
참가자	진행자 : 박찬혁 참가자 : 정용우, 김재무, 이혜리, 정한별				

■ 토론 내용

- 김재무: 찬성, 남녀합반을 하면 수업 참여도가 나빠진다.
- 정한별: 이성에 대한 신경이 많아진다.
- 정용우: 남녀의 로망을 깨뜨려야 한다. 고로 찬성
- 정한별: 악취가 심해진다.
- 김재무: 남자반만 남겨진다면 악취가 더 심해진다. 남녀합반이 되면 효율적이다.
- 정용우: 연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김재무: 중고등학교때 남녀간이 떨어져 이성간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 정용우: 피라미드 계층, 집단들이 합반이 된다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협동심이 좋아진다.
- 김재무: 사춘기에 합반이 된다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집중이수제로 몇 년후 자연스레 학반이란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 정용우: 교과교실제가 된다면 당연히 남녀합반이 될 것이고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다.
- 이혜리: 남녀합반이 되면 원하는 과목을 이수를 하지 못한다.
- 정용우: 집중이수가 필요하다.

■ 요약

1. 남녀 합반은 해야한다!!
2. 시범학교가 필요하다
3. 학생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주제 21. 두발자유

참여자 수	11	투표수	9	세션	1-5
참가자	진행자 : 김강훈 참가자 : 전희영, 남영욱, 한광수, 공현식, 최현재, 김궁배, 황인영, 김지성, 박진욱, 조민제				

■ 토론 내용

- 남영욱: 두발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필요없다. 수도권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나쁜 학생인건 아니다. 담배나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건 아니다.
- 김지성: 공부를 해야하는 시기에 겉모습을 꾸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김궁배: 허용해야할 부분은 규제하고 규제해야할 것은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획일화된 체제 규제는 창의적인 교육을 제한할 수 있다. 머리가 길면 학교의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
- 남영욱: 두발의 규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회장선거에서 두발자유를 한다는 약속을 말하게 된

다. 두발자유가 있다면 회장선거에선 또 다른 공약을 가지고 올 것이다. 두발은 자유화되고 교복은 입어야 한다.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 공현식: 학생이라는 걸 구별하려고 교복은 입어야 한다.
- 김궁배: 교복을 입어도 그 외의 요소들로 인해 빈부격차의 차이가 보인다. 교복을 입음으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 남영욱: 두발자유를 해달라고 시위 같은것을 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두발자유가 되어야 한다.
- 김궁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학생과 학교사이의 소모전 없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결론

우리 참가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참가자 대부분 두발자유에 대해 찬성하였고

- 첫째로 두발자유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에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제 22. 학교의 복장규제 필요성

참여자 수	13	투표수	4	세션	1-10
참가자	진행자 : 임도경, 참가자 : 박지민, 강선화, 장혜령, 한명자, 노은형, 신유진, 하수영, 진선식, 표정필, 이승운, 한정석, 임도경				

■ 토론 내용

- 용호고 복장규제 심함, 여름, 겨울 단색요구, 옷 색깔로 학생판단, 패딩색깔 규제금지
- 학교에 규정은 선생님 취향문제도 있음. 브랜드 옷 아니면 따들림.
- 학교 유색티, 패딩금지 계기는?
- 창원여고, 유색티 금지, 외투입고 교육출입금지, 단발령, 묶음머리
- 문성고 자율적
- 복장규제 강화로 인해 가장 불편한 것은 선생님들, 학생들과의 신경전, 시간투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
- 학생회의때 50명정도의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은 교장 한명의 결정으로 무산
- 학생 스스로 요구를 해야한다. 그 요구를 지킨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을듯
- 하지만 요구할 수록 교장은 귀를 닫아버림. 세대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의견 이해 못함
- 왜 자신들을 통제하는지 이해를 해야함
- 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졸업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마음가짐 바뀌어야 함
- 합의로 인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주제 23. 이과, 문과 꼭 나누어야 하는가?

참여자 수	6	투표수	3	세션	2-10
참가자	진행자 : 이다운, 참가자 : 박지수, 변명주, 이재영, 이다운, 전희영				

■ 토론 내용

- 이다운: 꼭 나누지 않아도 된다. 모든 과목을 배운후 입시제도는 과목 몇 개만 채택해서 반영되어야 한다.
- 박지수: 이과와 문과를 꼭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같은 경우도 문과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고, 이과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의 친구들도 성적에 맞춰서 선택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나 통합형 인재상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로 보나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변명주 : 고1때까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2때 나누는게 자기가 갈 분야에 대해 기초적이고 좀더 자세히 배우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서요.
- 전희영: 고등학교는 평균적인 시민을 교육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음악, 미술도 하는 다양한 상식과 교양을 쌓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재영: 이과와 문과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 이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결론 :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다. 안산 오픈스페이스

□ 브레이크아웃 세션(주제)

학벌, 대학 서열화 타파 출연자: 서규원	학교 수업내의 내용 말고 그 외의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7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4 송승연	9 사랑 0 항상진	0교시 폐지 8 " 3 야자 성취도 평가 폐지 (성화문)
학벌대학 서열화 타파	학교를 넘어서는 학습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사랑	0교시 폐지, 야자 폐지
중점화 학교 늘려 줄여 3 오규익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정말 가능한가 1 김연희	실업교육 2 이영민	학운위를 거수기로 만들지 마라 4 하예경	왜 학교는 권위적인가 5 권적인가!
중점화 학교 늘려 줄여	학교에서 학생 인권 가능한가	실업교육	학운위를 거수기로 만들지 마라	왜 학교는 권위적인가
모든 방과후 수업 폐지 2 정상적 수업만 제대로 운영 류정미	배움 10 경쟁 성장 이영민	학교가 변해야 한다 5	시험 위주의 교육? 7 홍건호	왜 학교는 변하지 않는 존재? 9
모든 방과후 수업 폐지	배움, 경쟁, 성장	학교가 변해야 한다	시험위주의 교육	예체능, 창의력 육성 학교



□ 브레이크아웃 세션(회의록)

주제 1. 학교가 변해야 한다

참여자 수	9	투표수	33	세션	
참가자	진행자: 이완섭 참여자: 오은주, 황선영, 김철진, 강성구, 황창현, 김명희, 김중섭, 강미현				

■ 토론 내용

- 이완섭 :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 생활하는 공간, 학생·교사의 행복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 제안. 모두가 변화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해야 함. 행복한 학교를 위한 다양한 얘기 꺼내보자.
- 김명희 : 자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내가 어려서는 학교라는 것이 즐거웠음.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음. 학교는 교우, 밥, 공부 등 다양한 것을 해야하는 공간. 학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행복한 학교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
- 오은주 : 우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시작일 듯.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 황선영 : 학부모와 위원장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 학부모 입장이었을 때 느꼈던 서로간의 대화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시각이지 않았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
- 강미현 :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 가르치는 교육-->질문하고 답을 찾는 방식. 스스로 알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듯.
- 김철진 : 학교는 잘 바뀌지 않는 존재. 세상은 변하는데 교육은 느림. 그 이유는 관리자 등의 변화 적응이 느려서. 또한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도 필요. 자발적으로 창대하려는 적극성 필요. 교육 뿐만아닌 공직도 마찬가지. 정형화된 답만 찾는 습관에서 창의적 생각을 제한하는 모습이 많음.
- 황창현 : 17년 경력. 초임때도 이런 고민을 함. 세월이 흘러도 잘 바뀌지 않음. 교사 개인의 변화 노력이 필요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그런데 제도가 잘 바뀌지 않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수업이 바뀌기 어려움. 토론식 수업이 좋은 것을 알지만 내 교실에서 바뀌는 것이 힘들다. 초임때부터 계속 느끼지만 교사들 스스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 제도로서 큰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명희 : 안산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고교부터 서열화가 되어 있음. 고교입시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 또한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 우리 나라 전체의 입시 병폐가 심함. 또한 관리자의 완고한 입장도 걸림돌. 학교장의 그러한 자세 때문에 학교가 변화하기 어렵다. 학교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필요함.
- 황창현 : 제도적으로 동아리, 야자 등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 없음.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변화들은 큰 변화로 이끌어내기 어려움. 큰 제도가 바뀌어야 함. 학교의 힘 노력은 좌절되기 쉬움. (오히려 학교에 부담) 단위학교의 노력은 실질적 효과가 적다.

- 황선영 : 혁신학교가 일으키는 바람이 더 큰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입시제도는 그 대로다. 기존의 방식대로 사교육에 편승하게 됨. 결국 학교의 노력이 헛되게 됨. 혁신학교의 모습은 좋지만 입시제도가 큰 걸림돌.
- 오은주 : 혁신학교가 더 활성화가 되려면 교사의 사랑이 필요함. 거기에 학부모·교사·관리자 모두의 사랑 노력이 필요함. 여러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학교 속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학부모의 바람. 학교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랑, 희망적인 자세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 황창현 : 혁신학교가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 제한점이 있음. 혁신학교 교사의 다양한 수업, 생활지도의 모습을 보니 교사의 노력이 대단한 생각은 들었으나 그렇게 토론식 수업을 받은 학생의 현재 모습을 보면, 혁신학교의 토론식 수업이 큰 효과를 보여주진 못했음. 오히려 낙제점. 좋은 수업을 받고 와도, 그 순간만 좋을 뿐, 입시제도에 걸리면 한계가 드러남. 혁신학교는 초·중학교에만 효과적.(비판적 입장)
- 강미현 : 입시제도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변화에 따른 수업 변화도 중요함. 입시·학교 모두가 동시에 바뀔 필요가 있음.
- 이완섭 : 바뀐다는 자체는 공감한다. 그런데 제도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 각 주체들이 각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김종섭 :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함. 순위 정하고, 평가하기로 즐거움이 사라짐. 제도·변화 노력은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일 듯.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력인지, 즐거움인지, 결정할 기회가 있어야 함.

주제 2.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참여자 수	4	투표수	24	세션
참가자	진행자: 송승연 참가자: 정태연, 조문선, 정연채			

■ 토론 내용

- 송승연 : 주제선정계기 혁신학교 토론회에서 경쟁과 서열화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준을 정해두고 떨어내는 교육인 것 같다.
- 정태연 : 인간자체가 달라(개성이 있으므로) 똑같은 교육은 할 수 없다. 발달 단계에 맞게 기다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남녀 학생의 시세포 자체가 다른데 그림의 평가는 똑같다. 개성 존중이 필요. 아이에 맞게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송승연 : 우반 열반을 나누는 게 열등감을 조장. 자존심도 상한다.
- 조문선 : 초등학교에서 남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다.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 정연채 : 아이들의 생명력을 어떻게 발하게 할까가 고민. 남녀가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도 중요.

주제 3. 학벌·대학 서열화 타파

참여자 수	7	투표수	20	세션
참가자	진행자: 홍연아 참가자: 박병우, 박준영, 오금택, 박효진, 유재, 최현주			

■ 토론 내용

- 박준영 : 근대화 과정에서 기술위주의 고등교육이 중요시 되면서 학벌과 학연이 너무 큰 비중 차지
- 박병우 : 서열화의 원인에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
- 최현주 : 경제적 배경과 학연적 인맥이 진학과 취업에 직결된다. (학벌과 부 되물림 된다.)
- 홍연아 : 학연과 연줄 위주로 도움을 주는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 박효진 : 대학 교육도 공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돈놀이가 되고 있다.

■ 대안 찾아보기

- 유재 : (예:이스라엘) 형편상 바로 대학 못감. 군대가 더 중요(어느 군대를), 군복무 후 취업 --> 필요 느끼는 곳으로 대학 (전문성 ↑↑) <-- 나라가 책임
- 박효진 : 혁명이 필요. 사회적인 성숙, 의식적인 성숙의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 최현주 : 고등학생들의 발언권과 권한을 높여준다.<-- 사회적 참여도를 높여 준다.
- 오금택 : 나서서 변화시켜도 본인 때 누리기는 힘들기에 참여도가 낮다. 남을 위한 마음 필요.
- 최현주 : 국·공립의 비율을 높이고 사립을 규제
- 오금택 : 대체로 학생 수가 부족한 곳은 지방, 학생 수나 재단 부족한 대학을 폐지해도 서열화 타파에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서로 서로 교육을 지원해서 대학 전체를 상향 평준화 한다.
- 박효진 : 무상 교육(반값등록금) 등으로 지원 대학을 분배시켜 서열화 최소화 공동학위 확대

주제 4. 0교시, 8교시, 야자, 성취도평가 폐지 건

참여자수	7	투표수	19	세션
참가자	진행자: 성화윤 참가자: 정연채, 황건하, 고수정, 조성빈, 곽영광, 노시구			

■ 토론 내용

- 성화윤 : 0교시등 수업을 가는 것이 문제이다.
- 황건하 : 0교시에 영어 듣기, 책읽기 등 시간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초·중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고교는 필요하다. 0교시를 안해도 등교시간이 늦어지지 않으니 필요하다.
- 고수정 : 0교시에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인데 필요할까 의심이 든다.
- 황건하 : 이왕 등교한 것이니 하는게 낫다. 등교시간을 늦춘다면 폐지해도 좋겠다.
- 곽영광 : 늦게 일어나면 밥을 못먹는데, 너무 일찍 등교하는게 힘들다.
- 조성빈 :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황건하 : 아침밥을 학교에서 줬으면 좋겠다. (0교시 시간에)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또 늦잠 자니까, 학교에서 밥 주면 좋겠다.
- 조성빈 : 나도 밥 주면 좋겠다. 아침 반찬을 간단히 라도 주면 되지 않을까? 빨리 와서 먹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 성화윤 : 0교시, 8교시 야자 등 너무 공부 시간이 많지 않은가? 수업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 황건하 : 고교는 상황이 달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8교시는 특강이나 자습을 주로 한다. 야자를 요일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 광영광 : 선택이니까 괜찮다.
- 조성빈 : 야자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하자.
- 고수정 : 어쨌든 학생의 자율에
- 황건하 : 어떤 학교는 강제로 하는 학교도 있다.
- 조성빈 :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광영광 : 성적이 미달한다고 남기면 스트레스 주고, 강요하는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남겨도 별 변화 없다.
- 조성빈 : 공부 방법을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업이 되면
- 황건하 :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으니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수학을 나도 다닌다.
- 성화윤 : 야자는 자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 황건하 : 야자 보다 보충시간에 도와주고, 야자는 자율로 하자. 수준별 반에서 일반 수업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 성화윤 : 성취도 평가에 대해
- 조성빈 :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쪽지시험 같은 식으로 해도 된다. 평가 결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다.
- 황건하 : 수행평가로 보는데 일제고사로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좋다(고교)
- 조성빈 : 6학년이어서 엄청 시험준비를 했다.
- 광영광 : 시험이 있으면 힘들고 못하는 아이들은 포기하게 되어 문제다.

주제 5. 시험 위주의 교육인가? 실질적 교육인가?

참여자 수	5	투표수	14	세션	
참가자	진행자: 황건하 참가자: 광영광, 송승연, 정철호, 채수용				

- 토론 내용
- 정철호 : 지금의 수업은 대학을 가기위한 공부?
 - 황건하 : 과학 자체는 이해위주인데 지금은 암기만 하는 교육이다.
 - 정철호 : 입시 위주가 아닌 대안학교 교육을 보면, 공교육만이 답은 아니구나 싶다. 입시위주의 공부가 두뇌를 다양하게? 하는 것 같다. 입시교육에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 방법을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입시 공부와 진정한 공부는 다르다.
- 송승연 : 지적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안타깝다.
 - 황건하 : 시험위주의 공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평가? 해야 할까?
 - 송승연 : 다양한 분야의 길을 열어야 한다.
 - 정철호 : 현재의 교육체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 채수용 : 밑에서부터 올리고 싶다. 요구를 받는데, 공부해서 대학가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서 그러지 못하는 길이 많다.
 - 정철호 :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지금은 입시에 폭 빠져 있다.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야가 넓어진다.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생긴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 황건하 : 직업에 따라 월급과이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싶은 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 송승연 :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문제를 없애면 나아질 수도 있다.
 - 정철호 : 행복은 소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 정은새 : 시험이 왜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꼭 시험을 통해서 점수 나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공부를 왜 하는지, 살아가는데 필요한지 의문이다. 생각해 보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주제 6. 학운위를 거수기로 만들지 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참여자 수	8	투표수	14	세션	
참가자	진행자: 하혜경 참가자: 이완섭, 황선영, 황창현, 박효진, 오은주, 임승국, 진선희				

- 토론 내용
- 진선희 : 기존운영위 포함 세분이 새로운 사람 포함하고자, 투표. 학교에서 새로운 멤버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 처음부터 막았다.
 - 오은주 : 반월중.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었다. 그 관례를 깨고 학부모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싸인만 하라는 부분, 알아서 기리는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과 분위기 좋게 운영하고 있다.
 - 황선영 : 학부모위원 사람은 진행. 아이키우는 엄마 운영위원회장이 되었다. 해양중 일부는 성향이 강했다. 우리.....?
 - 박효진 :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 이완섭 : 15년 되었다. 운영위원회. 교장의 독선이 횡횡하던 시기에 만들어다. 예·결산 심의, 민감하고 ...(?)인 분야다.?
 - 박효진 : 학교에는 규범과 법이 있다. 민주적인?
 - 황선영 :?

- 임승국 : 학운위 필요한가?
- 하해경 :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가 학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 박효진 :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교사의
- 오은주 : 83년전 학교.
- 황창현 : 어머니 자괴감 느낄 필요 없다.

주제 7. 배움. 경쟁. 성장.

참여자 수	5	투표수	12	세션	
참가자	진행자: 이영임 참가자: 강관섭, 전선희, 박영미, 하해경				

토론 내용

- 강관섭 : 우리나라의 교육, 점수화, 경쟁화 되어 있다. 천재를 둔재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이다.
- 하해경 : '경쟁'이라는 것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는 것 - 없어질 수 없으나 경쟁만이 강조되는 사회, 교육 안에서 '경쟁'을 어떻게 해소하고 유연하게 적용할까?
- 이영임 : 변화된 시대, 사회, 우리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다양하고 행복의 기준, 잘산다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찾아야 오로지 대학입학이 아닌 다른 삶을 찾고 자연스럽게 경쟁도 해소되지 않을까?
- 박영민 : 학교에서 정말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나?
- 하해경 : 학교에서의 경쟁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훨씬 심각해 지는 듯.
- 전선희 : 학교교육에서 공부 아닌 다른 것을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 강관섭 :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는 자신의 교육관-->실업계 학교에 근무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 아이를 성공 경쟁에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을까? 혼란이 온다. 경쟁을 줄여 줄 수 있을까?
- 이영임 : 어느 시대나 경쟁은 있어 왔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은 있어 왔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경쟁을 좀더 다양화해주고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자.
- 하해경 : 경쟁에서 밀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박영민 : 가르침 -->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능력을 키워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하해경 : 학교간의 경쟁이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 강관섭 : 경쟁심이라는 학습 동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가 오래가는 학습동기이다.

주제 8. 왜 학교는 권위적인가!

참여자 수	6	투표수	11	세션	
참가자	진행자: 김종신(교사) 참가자: 김성은(학생), 이영임(학부모), 박영민(학부모), 장혜진(교사), 유재(교사)				

토론 내용

- 김종신 : 교사가 당연한 것에 대한 확인조차 뒤라하는 교감. 교사 위에 교감, 교장이라 생각하고 있다.
- 이영임 : 학부모가 봤을 때도 너무 권위적이다. 동등한 주체로 봐주지 않고 교장의 의견을 따라줘야 하는 느낌을 받는다. 도서관 리모델링에 학부모 참여를 하겠다 하니 왜 그러냐며 그 전에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다고 이야기 함. 일반사회에서 용납되는 것들이 학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 김성은 : 배우는 것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다.
- 김종신 : 학국의 고정관념 아닐까? 다른 나라의 사례는 수평적이기도 하다.
- 이영임 : 절차와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 박영민 : 구조상 권위적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다.
- 장혜진 : 안전 제일주의 때문이다. "문제 생기면 책임질꺼냐?"라는 대답이 항상 온다.
- 이영임 : 교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하는게 당연한 일...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김종신 : 권위와 권위적은 다르다. 교장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 박영민 : 학생들만 있는 곳에서도 권위가 있지 않나?
- 김성은 : 원래 샘들이 그래! 나 인정한다. 권위의 최종은 학교폭력이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따라서 학교폭력은 50%학생, 50% 학부모, 교사이다.
- 유재 : 권위에 익숙하고 칭찬만 받은 우등생만 교사가 되어 계속 권위적인 것이 되풀이 되는 측면이 있다.
- 이영임 : 시대가 변해 권위에 조금씩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
- 장혜진 : 문제제기 자체가 적다. 침묵이 문제이다.
- 김종신 : 권위적인 학교를 권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사회는 바뀌는데 학교는 바뀌지 않는다.

주제 9. 예체능·창의력 중심의 수업, 왕따 없는 학교

참여자 수	6	투표수	10	세션	
참가자	진행자: 조성빈 참가자: 강미현, 권차량, 강관섭, 정태연, 배명옥				

토론 내용

- 권차량 : 제안을 한 이유?
- 조성빈 : 요즘 초등학교 교육내용도 딱딱하고 창의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제안합니다.

- 강관섭 : 예체능·창의력 중심. 왕따 없는 학교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토론할까요?
- 강미현 : 예체능·창의력 중심 교육부터 논의 하죠.
- 조성빈 : 예체능 중심 교육이 뇌의 좋은 물질(?)을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중심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 정태연 : 맞아요, 고등학교도 예체능 교육이 부족하고, 두뇌 개발만 중요시 하니, 이것이 학력신장에 도움될까 의문입니다.
- 강관섭 : 예체능과 난이도 높은 교과를 섞어 배치 했더니 효과가 높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예체능을 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 교육, 예체능 교육의 가치 그 자체를 찾을 때다.
- 정태연 : 아까 소외되지 않은 교육 토론 중 나온 공부를 못한다는 비난이 던져지고, 축구를 못한다, 요리를 못한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 또한 그것 중 하나이고 비난이 되어선 안됩니다.
- 배명옥 :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하면 기가 죽고...,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 예체능 필요합니다.
- 정태연 : 시간을 고려해서 왕따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 조성빈 : 장애우,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가 왕따 당합니다.
- 정태연 : 조성빈 학생이 직접 당하지 않아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조성빈 :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서요... 밟거나, 때리니까...
- 강미현 : 저는 왕따 당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학급에 학생을 대상으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나 징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정태연 : 학급에서의 왕따는 발생하면 조정하고 해결하기 힘듭니다. 초기에 서로 친해지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사에게도 학급 운영의 시간적 여유를 줘서 관계형성, 프로그램개발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요즘 일제고사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급분위기로 왕따가 되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관섭 : 초등은 더욱 원초적으로 괴롭힘, 학교폭력이 있는데, 이는 더 사회, 학교가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연 : 집단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배명옥 : 가해학생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주제 10. 학교에서 인권 보장이 가능한가?

참여자 수	7	투표수	7	세션	
참가자	진행자: 김명희 참가자: 박병우, 박준영, 강성구, 최현주, 정연채, 이호정				

■ 토론 내용

- 이호정 :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수업에 관한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잘 공감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치마길이 등 본인의 신체에 대한 부분.

- 정연채 : '학생이 봐도 지나친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인권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인권 조례가 생긴 전보다 오히려 더 낙오자가 생긴다. 선생님들이 관리하에 어려우니까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 김명희 : 인권조례만 나오고 구체적인 교육이 안된 것이 문제 일까요?

주제 11. 수업 외의 내용을 배우고 싶다.

참여자 수	9	투표수	7	세션	
참가자	진행자: 서규원 참가자: 김영건, 권차량, 장혜진, 이명익, 최선희, 권향숙, 최천식, 최성민				

■ 토론 내용

- 김영건 :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축구, 야구 등)를 배우고 싶지 않을까 해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 권차량 : 호기심이 많이 떨어지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는 뜻으로 알바하고 해서 좀더 사회적인 것을 알려 주고 싶다.
- 최성민 : 교육과정 조금 안 알려진게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 하려는 교육과정들은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말이 있다.
- 장혜진 : 수업시간에 그 외에 수업을 하긴 하는데 수업 내용을 연계해야 돼서 조금은 부담스럽다.
- 이명익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을 정말로 필요하는지, 문화를 좀 더 알려 주거나,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좀더 알려 줘서 진정성이 있는 것을 알려줘 사회를 좀더 어렵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 최성민 : 조금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게 운이 작용된다.
- 서규원 : 운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좀 더 열정이 있다면 해 줬음 바램이 있다.
- 최천식 : 교사의 사생활이 있어 이런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다.
- ○○○ : 학부모의 입장으로 초등학교생들이 받아쓰기나 구구단 하는데 그런 수업 말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걸 했음 좋겠고, 중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이 있지만 신청이 잘 안한다.
- 권차량 : 전 선생님 말대로 방과후 활동이 한계가 있고, 학생들이 나오지만 열의가 없어 힘들다. 만약에 열의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국, 영, 수 외로 좀더 해야 되지 않나.
- 김영건 :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느낀바가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다보니 느낀게 많았고, 주위 환경이 좀더 다양하지만, 위치적으로 힘든게 많다. 그러니 좀더 이런 걸해서 접하는 기회가 많아 좋을 것이다.
- 최선희 : 현재의 교육과정은 대학에 맞춰있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제 12. 모든 방과 후 수업 폐지, 정상적 수업만 운영

참여자 수	7	투표수	5	세션	
참가자	진행자: 류정이 참가자: 김성은, 채수용, 임승규, 고수정, 정은새, 진지혜				

■ 토론 내용

- 류정이 : 학교 방과 후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사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없애고, 학교 교육은 더욱 알차게 해야 하지 않나.
- 김성은 : 개인적 취향이 다른데,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내용이 다양해야 좋지 않은가요?
- 임승규 : 자꾸 이상한 것 말고...? 우리가 내용들은 더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왜 그러 하지 못하는가? 기본적으로 온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혁신학교도 교육과정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체능교육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자체가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가 궁금하다.
- 정은새 : 토요일 요리반 같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데...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 했는데 안전을 보고 궁금함이 들어서 오게 되었다.
- 채수용 : 다양하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 개인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 공부관련한 내용이 많다. 학교 내에서는 공부 말고, 취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 김성은 : 수업으로만 하는 이유는 학부모 때문이다. 고정 관념 때문에 학교에서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김종신 : 살아있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한 바뀔 수 있다. 교과서 배우는 과정에 학생들이 어떻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방과후까지 하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바쁘다. 충분히 활동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 임승규 : 방과후 학교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면 꼭 필요한가? 그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 류정이 :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목적을 수정해서...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의 대안이 아닌 것 같다.
- 김종신 : 재미있다는 방과후 학교가 있어야? 하는가....? 자기시간은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다. 다양한 경험들이 수업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 대안 찾아보기

- 동아리 활동 활성화 정착
- 방과후 학교 정착 - 사교육비 경감 위주 폐지
- 취미 등 강좌

주제 13. 중점화 학교 현실태와 미래 방향

참여자 수	3	투표수	4	세션	
참가자	진행자: 오금택 참가자: 성화윤, 서규원				

■ 토론 내용

- 오금택 : 현재 학교들의 문제들이 특목고이지만 그 과목의 특화가 아닌 고등학교 서열화의 현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서규원 : 특목고가 변질 되긴했으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수단이 되긴 하지만 중점화 학교의 질을 높인다면 괜찮을 것이다.
 - 성화윤 : 한 진로에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특성화를 시키고 제2 외국어 정도만 선택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내신에 의해 진로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 #### ■ 대안 찾아보기
- 중점화 학교로서가 아닌 중점화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개성을 살려 진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특수목적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방과후 학교의 개념을 살려 중점교육을 하고 학교간 연대를 강화.

주제 14. '사랑'이다!!

참여자 수	3	투표수	4	세션	
참가자	황효진 (안산시의회 시의원), 김명하, 나정숙				

■ 토론 내용

- 사랑에 대한 학습 : 학교에서 가능한가?
- 사랑의 의제가 교육현장의 브링브링한 분위기를 말하는가? 교육의 커리큘럼의 사랑학인가?
-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교육해야 하는가?
- 인권조례 - 사람 제재하지 말아야 하는가?
- 학교안의 사각지대, 제3자의 눈에 보이는 학교안에서 '사랑이 현실'
- 사회가 사랑을 담아내야 하지 않는가?
- '사랑에 대한 감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으로 긍정적이지 않는 현실 사랑 개입을 인생 전체 다각적으로 오픈해지는 학교 교육 부족 현상은 왜 그럴까?(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 학교의 기능을 기술로 보는 것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말랑말랑한 기회를 말할
- 학교, 교사 --> 가능성의 기회를 주는 것, 훈육
- 사랑에 대한 교육, 사랑 워크숍, 언어 폭력
- 사랑의 긍정적 단어
-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사회 나왔을 때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 프로그램 되어서 TV, 사회에서 교육 받는 것과 욕망, 탐욕 --> 고단한 삶을 살 때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찾아가며 '졸지 말아야 한다' 자기 사랑해야 시작으로 타인 사랑!

라. 의정부 오픈스페이스

□ 브레이크아웃 세션(주제)

누구를 위한 주5일제? 9	학교에서 무엇이 교육으로 알려졌을지는 선택의 선생님입니까? 스승님입니까? 김현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는 안된다 4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2	1	집중이수제 7 학부모-생각부족 대안이냐? 김현
누구를 위한 주5일제	선생님입니까? 스승님 입니까	공부만 가르 치는 학교는 안된다	인성교육	대안학교	집중이수제, 학교폭력생기 부기록

너 꿈이 뭐야? 8	NO 3 새가 0.7	자유로운 2	시간표 바다시 필요 할까? 1	상대평가 6	공부가 중요해 10 인성이 중요해? 김현
너 꿈이 뭐야	생각하는 인간	자유로운 교육	시간표 필요할까	상대평가 폐지	공부가 중요해 인성이 중요해

학교에서 뭐해? 8	우리 들은 11	문·어과 탐구과목 공동화 3	교과만 맞추려는 학생 학생이 맞추려는 교육 5	4	시키는 혁신 파괴 혁신 인간? 인내 혁신
학교에서 뭐하나	차별화된 교육(맞 춤교육)	문어과 공동화	탐구과목 학생에 맞추는 교육	4	시키는 혁신 파괴 혁신 인간? 인내 혁신



□ 브레이크아웃 세션(회의록)

주제 1 .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참여자 수	9	투표수	23	세션	1-8
참가자	진행자 : 심성여 참가자 : 박준범, 이종석, 장효진, 하미경, 이신애, 김재욱, 김현주, 위혜진				

■ 토론 내용

-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는 아이들만
- 죽어있는 인성교육 (의무적...)
- 밖에서 보는 묶음식
- 어른들... 책임의식
-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 가정, 인성 어려서부터 (한부모나 조부모자녀.....)
- 친구들이 하나까 따라하게 된다.
- 욕의 의미조차도 인식을 못한다.
- 학교가 하위문화가 되어 있다.
- 학교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한다.
- 한부분에서는 자존감(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이 필요하다.
- 모범생을 보는 편견
- 방법: 집에 들어가서의 대화 단절 되어 있는 것을 대화로 푼다.
-> 학부모들이 학생의 인성을 교육에 맞출 수 있었으면 내자녀부터
- 아이들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 학교 교사는 딜레마가 있다.
- 다수의 아이들 때문에 교사에게 힘이 딸린다.
- 정책쪽에서 사회에서 과제로 남겼으면
- 가정교육(맞벌이, 한가정, 조부모 자녀에게는)에서 선생님과 친구 도움이 필요하다.
- 사춘기때 대화가 더 필요하다.
- 고학년이 더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
- 부모님들이 학생들 (-> 부모님 말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앞에서 선생님 흉을 안보았으면
- 학부모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 교사가 아이들 생활지도 손을 놓았다고 본다.
- 범륜스님: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다
- 아이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 그래서 가정교육이 더 필요하다. -> 나서면 착한척한다. "나댄다"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관계 맺기가 어렵다.
-> 부모교육이 먼저다. -> 부모님의 학교에 대한 불신부터 없어져야 한다.

부모는 돈, 너의 인생은 니가 개척해라-> 무책임

- 나는내가 어떻게 하겠다(변화된 생각)
- > 우리 아이는내 새끼만 챙기려는 /모두가 내 자녀야 된다.
- 온실속의 아이: 방치는 외로움을 달래는 상황의 대체
- 가정교육이 바로서야 나가서도 잘한다.
- 비교는 어른이고 아이이고 절대 안된다.
- 선생님이 되면서, 학부모가 되면서(학부모가 학부모 연수를.....)
- 어른들 재교육, 조기교육먼저보다 성인 재교육이 더 필요하다.
- 학교 윗분들..... ->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에만 성실히!를 바란다.
- 요즘아이들이 더 똑똑해서 어른이 말하기 전에 인식한다.
- 아이들이 왜 무섭게 느껴질까?
- 사회가 어떻게,
- 학교가 어떻게, 해서.....
- 가정이 어떻게,
- 잠재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된다.
-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부모가 부모로서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하다.
- 나는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 학생과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도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제 2.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혁신, 이것이 혁신인가?

참여자 수		투표수	22	세션	2-2
참가자	진행: 허혁				

■ 토론 내용

- 발곡의 혁신은 원해서 한계 아니다. 100분 수업 원치 않았고, 교사도 흐지부지한다.
- 100분수업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실시한다. 종이로 참여하지 않았다.
- 학생에게 묻지 않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결과만 원한다.
- 대토론회 후 결과가 없었다. 이미 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다.
- 1. 100분 수업 의미 x(선생님도 시키니까 하는 것이다) 다른 반에도 피해가 간다.
 쉬는 시간은 제공해 놓고는 조용히 하라는 것
- 2. 교과교실제 : 도난사건, 쉬는시간 ↓, 이동시간↓, 이동거리단축/엘리베이터도 운영↓
- 3. 혁신학교를 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없다. 교과교실제도 수업개선 x
- 4. 재능을 발굴하는 것도 혁신인데 혁신이
- 5. 꾸준히 해보는 게 없이 찌든다.
- 6. 혁신학교 전에 두발을 잡았다면 => 혁신학교 후에 계속 단속 성과

학생들 스스로가 뒤집히는 능동성이 없다. 학생들은 피해 볼까봐

- 7. 학생회가 도와준다. 학생회가 토론회를 준비한다. 학생회가 검열을 받는다. 학생들도 불만만 토로한다. 선생님들이 말만하면 눌러버린다. 이런 거 신경 쓰는 동안 공부만해라.
- 8. 건의함(건의안이 오히려 더 억누른다) 어쩔수 없다는 답변
- 9. 학생신문(학생기자), 학교게시판을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10.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위기 or 교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주제 3. 무너지는 고3교실, 대학에 종속된 고등학교 교육

참여자 수	4	투표수	18	세션	1-1
참가자	진행자 : 함경희 참가자 : 김미선(고2), 최진선(고2), 김혜경선생님				

■ 토론 내용

- 평가가 끝난후 공백시간 활용: 축제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 영화만 틀어놓지 말고
- 평가 후에 무너지는 교실 : 평가를 중간, 기말로 나누지 말고, 수시로 수업시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 방학전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ex) 의여중, 군무대회(고학년)
- 고3 수능 끝나고 늦게 등교, 일찍 하교
- 학생은 학교에서 의미가 없다. 수능 때문에 선생님들도 원하는 수업을 못한다.
- 세계사 선생님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심으로 수학도 책에 나오는 것만이 전부 아닐텐데...시험이라는 큰 틀 때문에 힘들다.
- 인문학 동아리 하면서 소극적이던 내가 적극적으로 변하다.
- 학교에서는 많이 참으면 성공한다. 선생님은 너희랑 소중하고 싶다고 하지만 교사는 소중할 방법을 주지 않는다.
- 초등학교 1,2학년이 국, 영, 수, 사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로 요통이 발생한다.
- 초등2학년 우열반으로 서열이 나뉜다.
-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얘기 하고 싶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대학에 종속화 프랑스의 경우 1년 수료, 2년 수료를 자연스럽게 기록.
- 프랑스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부채의식이 있다.
- 고등학교는 생각하는 교육, 대학은 전문적 지식을 알아야한다
- 대학평준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학무보들의 걸림돌
- 대학에서는 스펙을 바라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표현하는 공부를 한다.
- 대학생은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낭만적인 생활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습이다-전공분야끼리 소통할 수 있는게 많다.
- 돈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갖출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다가->인문학동아리->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안되는 과목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것.
- 단위수가 큰 과목을 하나. 자유롭게 과목 선택해도 인원수가 적으면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적어진다.

주제 4. 수동적 공부방법

참여자 수	4	투표수	17	세션	2-4
참가자	진행자 : 우성미 참가자 : 손인아, 조현환, 심성여				

■ 토론 내용

- 대입중요 -> 성적향상 -> 진도 빨리
-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자 ↓즐거움을 추구-> 하지만 현실은 대입 중요! 일단은 진도, 공부
- 선생님의 조언이 아이에게 도움, 토론회를 열어 여러 생각을 나눠야 함.
- 아이의 영어학원 × -> 토크현상사라짐 -> 내심 불안
- 주변환경 중요. 유치원때부터 교육
- 학생 -> 불안 -> 성적 신경 안쓴다해도 부모님은
-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필요함. 다양한 경험을 하는게 중요함
- 입시제도가 문제! 취직 지원서 학벌을 적지 × -> 합동 프로젝트
- 사회적응을 못함. 공부만 하다보니 신경을 안씀.
- 문제 풀이 기계로 만드는 느낌 -> 사회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보임
- 입시 평가를 바꿔야 함 ->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말아야 함.
- 교사의 자유가 없다. 교과부의 지침대로 -> 교과부의 강제를 벗어나자!
- 선생님과의 거리가 멀다. 스스로 열심히! 의미가 있어야 참된 공부.
- 주입식 교육은 걸땀, 영원히 남는 것은 추억과 관련된 공부
- 많은 것을 시켜주고 싶지만... 역시 공부가
- 대화가 중요하다. 합동 수업이 필요.

■ 결론

- 학생 입시 불안, 공부를 즐기고 싶지만... 즐길 시간엔 다른 공부!
- 부모님 : 자녀를 위하고 싶지만 내심 불안....
- 선생님 : 학생들이 걱정. 사회 부적응이 눈에 보이지만....
- 역시 입시문제, 대학을 해결해야 함!

주제 5. 너 꿈이 뭐니?

참여자 수	7	투표수	17	세션	2-3
참가자	진행자 : 김지윤 참가자 : 이로빈, 김으뜸, 원가영, 윤동섭, 함준형, 정수정				

■ 토론 내용

- 입시,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꾸는 꿈과 고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토의주제를 적었어
- 내꿈은 의사였지, 수학만 했어, 그래서 꿈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 난 문이과를 나누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 문이과 분위기도 문제야.
- '집중이수제'도 문제. 그러한 문제를 교육부에 올리기로 했어
- 나도 하고싶은게 정말 많았어. 이 나이대 학생들이 꿈이 뭐였냐하면 벽이 높아

-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 책도 정말 좋거든? 그럼 소설가가 돼야지라 생각했어
- 고등학교 교육이 어느정도 기초적인 것이니까 마음가짐이 편하게 되더라고
- 역사책을 정말 좋아해서 역사학자가 되어야지라 생각했어 '돈벌이'가 안돼서 포기했지
- 설명해주는걸 좋아해서 역사선생님 -> 고등학교-> 어떤 역사 선생님이 되고싶니-> 만화 책을 정말 좋아해-> 만화책들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끔 만들게 했어. 공통점이 있지 ->그래서 교육을 통해 정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해
- '정의'란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라고 봐. 사람마다 다른거지 내꿈은 카디자이너(car) 였는데 돈이 되는 의사로 바꿨어
- 난 문이과를 나누는 업무를 맡았어. 선생님중 누군가는 해야해서 하고 있어. 입시랑 얽매어 문이과 이야기
- 얘기를 하는것 같아. 제대로 된 진로와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어 => 선생님도 어쩔수 없는 입장이야. 최대한 학생편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거지. 문제는 애들이 꿈이 없는게 문제야. 하고싶은 것도 없는데 고르라니까 힘든거지
- 꿈을 찾는 방법 중 책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관을 찾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키포인트야, 진로에 있어 아이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20대에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있어,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 직업이 계속 변하는 것보다 자기를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
- 이중에서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려는 게 가장 중요해,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지. 열정만 갖고 해도 안되는게 있어, 인간은 다 비슷해. 1등2등만 특별히 보여지는 거지.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봐
- 꿈이 돈과 관련된 것도 문제야.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
- 송현고학생, 이수나로에서 활동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불을 붙여 빛을 냈으면 좋겠어. 내 꿈은 전세계에 친구1명씩 만드는게 꿈이야, 정말 최종적으로 진로교육을 할때 뭐 해야할 지 고민해본적은 없어, 자기 꿈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되렴
-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대통령이 내꿈이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직업의 다양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했으면 좋겠어.

주제 6. 집중이수제

참여자 수	9	투표수	17	세션	1-11
참가자	진행자 : 위혜진선생님 참가자 : 김혜정선생님, 이서라 선생님, 김재욱선생님, 구예은, 황혜진, 이정혜, 허윤정, 이정란				

■ 토론내용

- 이서라: 과목-> 필요한 것이 어우러져야 효율적 하지만 선택적, 집중적이기 때문에 학습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크다(수박 겉핥기식 교육)
- 김재욱 : 교사입장 - 시험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 학생들이 적응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부담 ↑) - 학생과 선생간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 한학기를 비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는 것 같다. - 담임 선생님의 경우 학생간의 소통의 시간이 거의 없다.
- 황혜진 : 과목을 배우는 학생의 인원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급을 산출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발생한다.
- 허윤정: 과목수가 줄어들: 학생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 구예은: 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됨->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이정혜 : 한 학기에 너무 방대한 양을 배우다 보니 실질적으로 습득한 지식이 거의 없다(수박 겉핥기식 교육) => 모의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 범위의 차이(학교에서 배운 것과 전에 배운 것의 차이가 발생)

■ 주제추가: 학교폭력-> 생기부에 기재해야 되는가?

- 이정혜 :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평생가는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 김혜정: 징계는 하되,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말자- 극단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
- 위혜정: 생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학폭을 하지마라-협박과도 같은 것이다
해결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 이서라: 아무것도 적지 말아야 한다. -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기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 황혜진 : 기재해야된다- (피해자입장)위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 대안 찾아보기

1. 서류상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함을 위분들(직위)께 알려줘야 한다.
 2.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에서의 해결방안: 관찰일기, 친구 만들어주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 협동이 필요

주제 7. 왜 문과와 이과만 있나요?

참여자 수	9	투표수	16	세션	1-2
참가자	진행자 : 송정희 참가자 : 김나영, 전지희, 최사라, 이경호, 김영이, 허혁, 오명산, 소향권				

■ 토론 내용

- 나는 수학과 국어를 좋아하는데
-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수업은 단조롭고, 다양하지 못하다.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
- 교원수요에 의해 미리 결정을 해야한다.
- 한번 결정을 하면 힘들다. 모든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지않아 힘들다.
- 수강신청 형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ex. 교실, 교원수요)
- 교과교실제 걸음으로 보이기만 한다. 효율성이 없다.
- 입시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바꾸기가 어렵다.
- 국가수준의 교육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힘들다. 인문계 학교는 수능중심이기 때문에 힘들다.
- 늦춰도 똑같은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 늦추는게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다.

- 반론: 늦추면 똑같은거 같다.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좋다.
- 성적대로 정해서 가는거 같다.
- 자기 입장에서 말은바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학 공부도 해야된다.

주제 8.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는 안된다.

참여자 수	6	투표수	15	세션	1-7
참가자	진행자 : 김으뜸 참가자 : 김정래, 우현주, 조성민, 우성미, 이로빈				

■ 토론 내용

- 학교와 학원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배운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현재는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과연 학원과 학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학교가 의무교육인 이유는 공부(지식)을 습득한다는 점 외에 다른 것을 얻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이를 해결할 방안은 첫 번째 공부가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 두번째, 학생들과 선생님들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회 활성화
- 먼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것을 구체화 시켜봤는데 학교는 인성, 자율성, 상호작용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작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세 번째 학생을 스스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주제 9. 학생특성 살린 맞춤 교육

참여자 수	9	투표수	14	세션	1-10
참가자	진행자 : 윤은비, 김지혜 참가자 : 김지혜, 권진희, 김소영, 최혜빈, 조아현, 조승희, 윤은비				

■ 토론 내용

1. 시간표를 정해두되, 하고싶은 것 수업을 찾아가기-> 시험을 수행평가식으로
2. 인문계와 전문계를 나누는 것을 없애자 -> 수업선택형
3. 한학기는 우리맘대로 자유수업 한학기는 수업을 집중
4. 직업체험반 시간표에 넣기
5. 직업체험활동을 체험활동중 하나로 넣기
6. 하고 싶은 직업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그 직업 면담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
7. 방과후 자격증반 만들기
8. 예체능 아이들을 위해 특성화반 만들기(방과후)
9. 진로선생님, 상담선생님이 많이 필요
10. 목표를 못 정한 사람들을 모아 상담, 직업들을 설명
11. 테마수업해보기(야외수업 등)
12. 원하는 과 대학 탐방할 수 있는 체험
13. 설문조사를 통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하기

■ 대안 찾아보기

1. 인문계와 전문계를 나누는 것을 없애자(수업선택형)
2.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체험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자격증반)
3. 진로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을 많이 배치

주제 10. 상대평가를 폐지하자

참여자 수	10	투표수	12	세션	2-6
참가자	진행자 : 이형준, 정인기, 구예은, 이정혜, 최진선, 이충익 참가자 : 안홍진, 김소영, 이서라, 이형준, 이충익				

■ 토론 내용

1. 제각각 능력들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하는 것이 문제!
2.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이유는 내신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3. -> 그러면 수능식으로 전국에서 시험을 보자! -> 그럴 경우에는 학교시험이 수능화가 되어버린다.
4. 성적을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신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5. 수행평가식 시험을 보자! -> 평가권은 교사에게! -> 공정성문제, 수행평가가 많아진다.
6. 반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데 시험은 같은 기준으로 채점하니 문제
7. 문제를 풀때 생각을 써서 내는 문제 만들기
8.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교사에게 맡기자
9. 채점기준을 달리한 절대평가
10. 평가를 성적이 아닌 글로 기록해도 될 것 같다.

주제 11. 왜 교무실 청소를 학생이 해야 되나?

참여자 수	10	투표수	11	세션	2-1
참가자	진행자 : 이종석, 홍용수, 김지혜 참가자 : 김우진, 윤은비, 김석진, 박준범, 심하영, 김재욱, 우현주, 하미경, 오명실, 이경석				

■ 토론내용

- 교실청소는 학생, 선생님공간은 선생님께서
- 스승의 은혜에 보답 -> 청소로 표현 -> 다른 방법, 스승의 은혜를 다른 방법
- 학교에 있는 모든일은 교육이다.
- 내가 쓰는 공간은 내가 치워야 된다.
- 교사와 학생들과 소통의 주제
-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야한다'라는 생각 X
- 속으로 앓고, 발언할 기회가 없다.
- 학생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면 시간이 없다. -> 평소에 해서, 공강시간때 선생님들과 당번을 짜서 청소

- 고용창출 -> 대학교처럼 청소아주머니들께서
- 학교도 직장이다. -> 우리는 받은게 없다. 정당한 대가 -> 교무실청소-> 특혜
- 참신한 주제, 선생님들께서 분리수거하기(-> 학생들이 보고배울 수 있다) 민망할 수도 있다.
- 공동체의식, 청결, 도움, 공감대형성
- 교실청소와 교무실 청소는 구별하자.
- 교무실 청소는 교육적 가치가 있을까?
- 어떻게 바뀌어야되나. 실현가능성?
- 오랜권위, 관습 끊어져야 한다. 소통
- 교사화장실, 학생화장실
- 시간이 지나면 바뀔듯하다. -> 화장실을 용역을 하는 듯이
- 일 역할을 잘 배분하자.
- 교무실 청소와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소통)
-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청소
- 선생님들의 설득, 동의, 교육관, 선생님들의 입장, 교육의 목적
- 교실은 학생의 공간-> 학교전체가 학생들 것이다.
- 청소의 근본적인 목적-> 공동의 공간->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 청소로 인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청소시간만되면 선생님들께서도 스트레스
- 근본적인 사고문제
- 용역으로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자.
- 지각한 사람 별로 교무실청소 ->벌이면 안된다. ->하대하는 노동x↓기본만 인식을 바꾸자.↓ 배려심, 역할분담안해도 자발적으로 하는게 이상적으로 좋다.
- 학생 선생 수평적인 관계

주제 12. 누구를 위한 주5일제인가?

참여자 수	5	투표수	10	세션	1-5
참가자	진행자 : 김우진 참가자 : 김석진, 심하영, 정수정, 이충익				

■ 토론 내용

- 5일제 취지- 가족간의 소통, 그러나 자녀와 부모의 휴일시간이 맞지 않음 문제점
- 1. 방학일수가 줄
- 2. 토요일에 오히려 사교육 부담
- 3. 평일 수업시간이 갑자기 늘어나 적응이 힘들어짐
- 4. 동아리 활동에 제한이 가해짐
- 5. 금요일이 휴일 같은 느낌이 들어 1,2,3,4교시 수업집중이 힘들-> 교사부담
- 6.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남.

○ 장점

1. 휴식시간이 늘어남
 2. 개인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남
 3. 근로자 입장에선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좋음
 4. 부모입장에선 자녀와의 소통시간이 늘어나 가정화목에 기여함
- 일수가 줄었다면 시수도 줄어야 한다. -> 교사, 학생의 부담이 줄어든다.
- 1년에 토요일 48일, 주5일제 함으로써 줄어든 일수 25일,
- 그만큼 우리는 부담이 된다.
- 우선 주5일제의 취지와 의미의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에 해결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자.

■ 대안 찾아보기

1. 휴일 사교육에 제한을 주어 주 5일제의 취지를 더욱 고취시키자!
2. 취지가 교사,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일수가 줄어든 만큼 시수도 줄어야 한다!
3. 휴일에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문화시설 확충을 하자! 무엇보다 이제도에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은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해서 보다 나은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자!

주제 13. 학교에서 우리의 교육을 맡으신 분들은
저희들의 선생님입니까? 스승입니까?

참여자 수	5	투표수	8	세션	1-6
참가자	진행자 : 김도현(학생) 참가자 : 안홍진, 이형준, 정민기, 김진현선생님				

■ 토론 내용

- 학교에는 스승님이 필요하다.
- 시대의 차이, 스승= 멘토, 선생님이 예전과는 다르다. 애정의 차이
- 여러 가지 제안을 시대가 꼬리의 꼬리를 물며 제한함
- 스승의 자세로 교육의 자세는 학교와 사회가 바라는 교육자세가 아니다.
- 지금 우리의 교육과정과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교육 제도가 바뀌면 스승도 바뀌어야 하나?
- 우리가 변화를 느끼면 선생님도 교육제도에 가로막힌 스승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나?
- 선생님과 스승님과 학생의 고정관념을 깨버려라!
- 교육의 수단화로 인해서 폐해를 입었다.
- 우리들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이 수단이 되버림으로 교육이 썩어간다.
- 교육은 목적이다.
- 교육을 정부가 맡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교육은 썩어간다.
- 우리는 억압에 의해서 우리 자의의 발언권이 없다.

주제 14. 대안학교

참여자 수	7	투표수	6	세션	1-9
참가자	진행자 : 한준형 참가자 : 홍용수선생님, 강화민, 함준형, 황서현, 김현주선생님, 이성식 학부모				

■ 토론 내용

- 논제 : 왜 혁신화 교육은 뜨는데 대안학교는 가다마는가
- 질문: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선생님께서는 대안학교를 어찌 생각하는지 (준형-> 성식)
- 기존의 학교에 비해서 (입시) 대안 문제시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 현재 떠도는 학생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 학원이, 무상급식
- 대안학교는 학부모- 선생님- 학생. 대안 학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 학기 초반에 1-2학년때는 늘 불안정하지만 갈수록 안정화된다.
- 공교육의 본질은 대학교에 가는것
- 학교는 천편일률적
- 대안학교 프로젝트 수업
- 황시현: 서열문제 그따위가 보기 싫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다.

주제 15. 문, 이과 탐구과목 공통화

참여자 수	3	투표수	4	세션	1-3
참가자	진행자 : 윤동섭 참가자 : 조현환(백석고2), 정영숙				

■ 토론 내용

- 배우는 수업의 양 때문이다. (수학, 물리, 지구과학) ↓
- 문3, 이6 공동화를 할 시 배우는 양을 줄이거나 수업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 1학년 때 분위기 흐트리짐
- Q) 문과과목 선생님으로서 과목이 도움?
- A) 어법을 논술에서 쓸 수 있고 솔직히 이과인이라 국사같은 것을 소홀히 해서 공감어 안될 수 있는데 1학년때 경험과 평소 취미로 공감가능
- Q) 문, 이과 나누는 것 어떨까요?
- A) 주변인들 나누는 것을 안 좋아함. 문학과 수학과목의 차이가 많이 난다.
- Q) 선택제에 관해 생각 나라의 대안 제시부탁
- A) 일단 고등학생은 인생부족, 방학기간 동안 직업체험하는 학생별로 직접 체험은 힘들.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때 직업선택도 힘들고 문, 이과 나누는 것과 선택제도 더욱 힘들어짐
- A) 수능, 수학능력시험이므로 기초지식을 알고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데 이 때문에 문, 이과(성급하게 나누어서 학생들이 힘들)를 나눔, 고3때 결국 통합과목도 짬뽕한 그릇처럼 복

합이 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잘 안들으려 한다. 학생입장 집중이수제 때문에 수고, 물리 너무 힘들다.

○ 수업시간에 그에 관련한

1. 토론이나 밖에 운동장에서 바람을 쐬며 책읽는 시간을 가지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2. 집중이수제가 근본원인이라 생각하므로 집중이수제를 보완하자.
3. 오스트리아의 경우 과목이 4개 국어, 수학, 과학, 시민윤리(국가, 도덕 등의 기초지식을 압축)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처럼 시민윤리과목 같이 압축한 과목을 만들자.
4.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대교협과 같은 대학교수들 모임같은 곳에서 고교과목과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주제 16. 대학 왜가?

참여자 수	6	투표수	0	세션	1-4
참가자	진행자 : 원가영 참가자 : 장진성, 장효진, 김지윤, 황선영				

■ 토론 내용

- 자기의 필요성에 의한 교육
- 뒤에서 강압적으로 미는 교육이 아닌 자기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주제 17. 시간표 반드시 필요할까?

참여자 수	4	투표수	0	세션	2-5
참가자	진행자 : 김미선 참가자 : 황서현, 최진선, 황선영				

■ 토론 내용

- 교과서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 자유로운 교과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좋아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공부하는 학교, 매일 두시간씩 독서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침 독서시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 독서에 대한 개인의 선택도 중요한것 같다.
- 1학년 때부터 문이과에 대한 틀이 있다. 문이과를 분리해 놓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다. 애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입시플랜을 짜서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만 공부, 아이들이 교사차별을 하기도 한다.
- “교과교실제”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에는 자는 아이들과 열심히 듣는 아이들로 나뉜다.
-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 안타까움
- 선택의 폭이 넓지 않는 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까?
- 정책개선을 위해 들어오는 정보와 말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페이스북,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요청)

V. 참고자료

1.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출범 선언문
2. 2013 새로운 교육선언문

V. 참고자료

1.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출범 선언문

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출범 선언문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고픈 소망이 ‘2013교육연대’라는 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한경쟁의 정글을 헤매다 피곤에 절어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아픔이 ‘2013교육연대’의 닻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미친 교육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죽음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2013교육연대’의 돛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한국사회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행복지수에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끔찍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몰락한다’는 말이 비관주의자들의 과장이나 수사적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살률은 현재의 끔찍함을, 출산율은 미래의 끔찍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꼴찌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답한 고교생의 비율이 고작 11.7%에 불과합니다. 청소년들 절대 다수가, 아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불행해 합니다. 그저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의 의욕조차 잃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 목숨을 부지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끔찍한 현재, 더 끔찍한 미래를 바꾸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희망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고통과 병폐의 원천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은 견고하게 구축된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도록 가르치며 도덕, 양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괴물을 양산하는 거꾸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위 30% 아이들의 마당에는 미친 경쟁이 있을 뿐 교육은 없고, 중위 40% 아이들의 마당에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좌절이 있을 뿐 교육은 없고, 하위 30% 아이들의 마당에는 자포자기와 일탈이 있을 뿐 교육은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학교 교육 12년간의 총결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12년의 삶을 하루 만에 평가하는 사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왜 그 12년의 세월속에 서려있는 기쁨과 슬픔과, 극절 어린 사연과 번민들을 '하루 사이에' 평가 받아야 합니까? 그 12년은 성장통의 시간입니다. 그 성장통을 거쳐 온 힘겨운 영혼들에게 사회가 주어야 할 것은 서열의 낙인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정글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벌이 사실상 계급의 낙인으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의 그 강과름과 탈락과 배제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겨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서바이벌 게임의 전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참여와 결정,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합니다. 모두가 숨이 턱에 차도록 질주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과 속도에 맞게 배우고 쉴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2013교육연대'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살, 폭력, 왕따, 각종 정신·신체질환의 그림자로 뒤덮여 죽어가고 있는 학교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협력과 존중과 소통의 삶의 배움터'로 바꾸기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12년 대선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넘쳐 날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의 선택이 달라지는 사회,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결정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쟁과 차별의 낡은 틀을 걷어내고 협력과 지원, 민주성과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을 연호할 것입니다.

'2013교육연대'는 100만 국민서명운동, 전국순회대장정, 범국민교육정책대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간절한 교육적 염원과 요구를 모아, "교육 '때문에' 고통스런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을 새로운 교육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을 갖고 교육의 바다로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교육·노동·종교·시민 사회 216개 단체)

<참가단체> 강릉청년회 거례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남청년회 고양여성회 고양청년회 곡성교육희망연대 공주청년회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양교육희망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첨단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 교육문화공간 향 교육자치시민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구리여성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 군포청년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남해여성회 노원청년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담양교육희망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광장 대전청년회 목포교육희망연대 목포사랑청년회 문화다양성포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계승사업회 보성교육희망연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청년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사천여성회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북귀거지를위한국민행동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주) 서울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여성회 성남청년회 송탄청년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수지역성회 순천교육희망연대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스크린커터문화연대 시우터 시흥청년회 실천불교승가회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성여성회 안성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여수교육희망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영암교육희망연대 예수살기 오산여성회 오산청년회 오산화성교육희망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번영통일추진회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로교육자회의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주청년회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부녀여성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여성회 이천청년회 인천여성회 인천통일연대 장흥교육희망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주교육희망네트워크 진태일재단 정읍교육희망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즐거운청년커뮤니티e클럽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보사랑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제가연대 참여연대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우리 청주여성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시대 젊은벗 통일여성회 파주청년회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교육복지포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여성회 함천여성회 화성여성회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정의 홍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청년회(사)한국갈등해결센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615를실천하는대구청년회길동무 615를실현하는청년모임소풍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615와함께하는제주청년회 KYC

2. 2013 새로운 교육선언문

2013 새로운 교육 선언

우리는 무한경쟁의 정글을 헤매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자는 아이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아픔으로, 무엇보다 시험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미친 교육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죽음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고픈 소망으로 2013 새로운 교육실현을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이들은 공부 잘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공부 말고는 뚜렷한 취미도 없었다’던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똥똥하게 잘해라, 나는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아파트 창틀에서 몸을 던졌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오늘의 교육현실을 버텨내기가 버겁고도 무섭다.

한때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희망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고통과 병폐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이 명박 정권 4년 내내 꼴찌자리를 지키고 있다. ‘행복하다’고 답한 고교생의 비율이 고작 11.7%에 불과하다. 견고하게 구축된 무한경쟁 교육시스템은 남을 밟고 올라서도록 가르치며 도덕, 양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괴물을 양산하는 거꾸집으로 작동하고 있다. 끔찍한 현재, 더 끔찍한 미래를 바꾸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정글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벌이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격증’으로 기능하면서 탈락과 배제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겨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서바이벌 게임의 전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능시험을 학교 교육 12년간의 총결산이라고 한다. 왜 그 12년의 세월 속에 서려있는 기쁨과 슬픔과, 곡절 어린 사연과 번민들을 ‘하루 사이에’ 평가 받아야 하는가? 그 12년간의 성장통을 거쳐 온 힘겨운 영혼들에게 사회가 주어야 할 것이 서열의 낙인일 수는 없다.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숨이 턱에 차도록 질주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과 속도에 맞게 배우고 쉴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고도 질병도 그 무엇도 아닌 자살이라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걷어 치워야 한다.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협력과 존중과 소통의 삶의 배움터’로 바꾸기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바꾸는 국민서명운동’, ‘2013교육희망대행진’을 통해 국민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였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도하였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의 선택이 달라지는 사회,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결정되는 사회를 바꾸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2013 새로운 교육은 누구나가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선발에서 성장으로, 1%를 향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3년을 새로운 교육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교육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만날 것이며, “교육대통령” 선출에 힘을 쏟아 부여 역사적 순간을 잉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2년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